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二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一九〇〇

即時撤兵、原狀回復이 事件解決의 最要件
蘇艦擊沈은自衛手段結果
四相의意見完全히一致

【東京電話同盟】滿蘇國境乾岔子事件에 關한 四相會議는 一日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 開催하고 近衛首相을 비롯하야 廣田外相、杉山陸相、米內海相의 四閣僚가 參集하고 먼저 杉山陸相으로부터 最近의 滿蘇國境紛爭의 經過와 乾岔子事件에 關한 現地情報를 詳細히 說明하고 更히 廣田外相으로부터 모스크바에서 行한 重光大使와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과의 會談을 中心으로 交涉經過를 詳細히 報告하야 이에 對하야 日本側으로서의 對策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協議한 結果 今番의 蘇聯艦艇擊沈事件은 明白히 蘇聯側의 不法射擊에 依하야 惹起된 不得已한 自衛手段의 結果이다 要컨대 이러한 事態를 惹起한것은 蘇聯側의 이 不法占據를 敢行한 乾岔子、볼리시오이 兩島로부터 速히 兵을 撤收하야 原狀에 回復할것을 約束하고서 이를 實行치아니한結果이므로 政府로서는 旣定方針대로 該地에서의 卽時撤兵原狀回復이 事件解決의 最要件이라하야 모스크바에서의 外交交涉을 嚴重監視하기로 四相의 意見이 完全히 一致하고 同十一時三十分 散會하엿다 (寫眞上으로부터 近衛、廣田、杉山、米內各相)

滿洲國領水路閉塞
外交部、蘇聯에警告

【新京一日發同盟】滿洲國外務當局發表 = 乾岔子事件 現場附近의 滿洲國側 江岸附近의 水路閉塞에 關하야 滿洲國外交部는 一日午後七時十五分 蘇聯에 對하야 如左한 警告를 發하엿다

對策考究中

【新京一日發同盟】

外務省遺憾表明
蘇聯의態度에對하야

【東京電話同盟】外務當局은 今番事件에 對한 蘇聯의 態度에 對하야 一日如左히 遺憾의 意를 表明하엿다

兩島의歸屬
日本側의見解

【東京電話同盟】乾岔子島南北 兩島에서의 蘇聯艦艇의 不法侵入事件에 對하야는 再次 重光大使로부터 …

事件의推移注視
蔣氏、情報打電訓令

【上海一日發同盟】上海中國紙는 一齊히 …

뉴욕타임스의論評

【뉴욕一日發同盟】뉴욕·타임스 …

皇太后陛下
伊東師團長以下에賜謁

【名古屋電話同盟】名古屋에 御駐泊中의 皇太后陛下께옵서는 一日午前中 御泊所 元名古屋離宮에서 御休養을 하옵시고 午後一時半부터 …

內外各機關 廬山에移轉

【上海一日發同盟】國民政府內治外交各機關은 全部廬山으로 옮기어 一日부터는 外交財政其他各部가 廬山牯嶺에서 正式事務를開始하야 八月末까지 辦公할豫定이다

西叛軍政權에對한 交戰團體承認에異論
英閣內大多數의意見

【런던三十日發同盟】英國政府는 三十日午前十一時半부터 首相官邸에서 定例閣議를 開催하고 …

妥協成立疑問
不干涉分科委員會

【파리三十日發同盟】不干涉分科委員會는 …

不干涉協定 堅持
佛大使言明 英外相과協議

【런던三十日發同盟】…

西叛軍不遠 산탄델占領?
勝勢를타서

【산탄델三十日發同盟】…

政府軍要塞에 海上示威敢行
國籍不明의軍艦

【發同盟】…

川、康雜軍의 整理에着手
全國統一의癌除去

【南京一日發同盟】…

山東沿岸에增兵
對日防備陣强化로

【青島二十九日發同盟】…

西安事變首謀者

"平等"으로써하면 北中問題容易히解決
楊氏途米途中神戶着

【神戶電話同盟】…

中央經濟會議
一日官制公布

【東京電話同盟】…

設備의擴充圖謀
工作機械의製造能力과

資源審議會總會
答申案可決

【東京電話同盟】…

政局安定의裏面微妙
新黨氣運再次擡頭
特別議會後急展開?

【東京三十日發同盟】…

英獨、英蘇間의 海軍交涉進捗
英外相、上院의答辯에서示唆

【런던三十日發同盟】一九三六年三月 英、米、佛三國政府間에 …

滿洲國各部 大臣更迭

【新京三十日發同盟】…

삐라질에叛亂

【리오데자네이루一日發同盟】…

東亞短評

夕刊後記

경신문제 스파장

儆新의危機!

인계하려는김홍량씨

儆新引繼承認案은 五個會에附議決定
米、本部에서最後斷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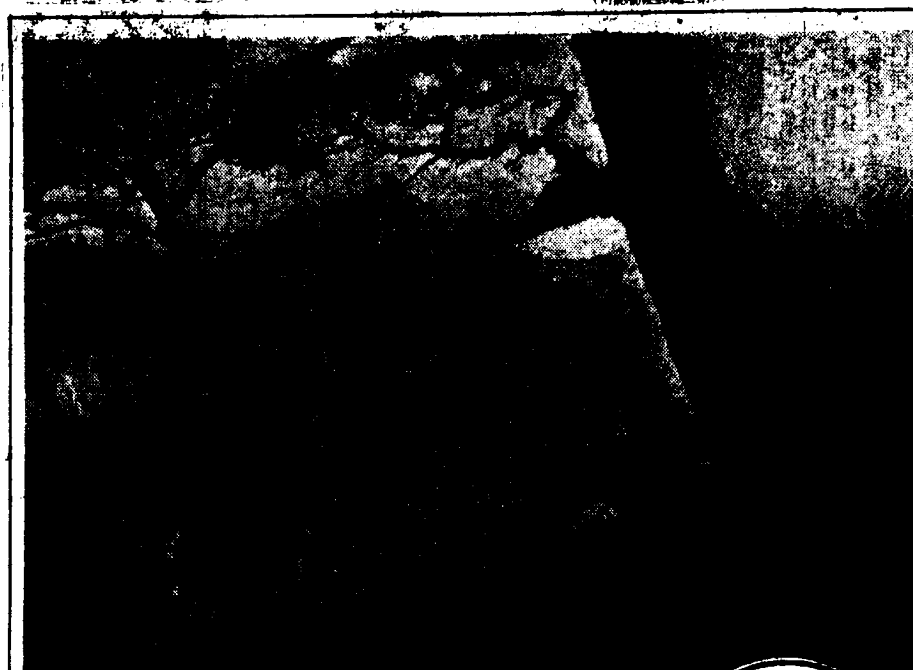
【平壤支局電話】 누보 경신학교 儆新學校에 대한 안아 安倍 김홍량 金鴻亮 씨와 경성노회 京城老會 와의 공동인계경영 반일노회에서 경영에 승인해는 경우에는 김씨 단독경영 정위한데 대하야는 조선"미슌"회총회에서 오후 ○시부터 동 四시까지 토회한 결과 동안을 경성"스테이슌"회에 회부하야 가부를 결정한 다시 "미슌"회 실행위원회, 각지"미슌"회, 경신학교이사회의 승사로 가부를 무러 최후에 미국외지선도 본부에 보내기로 결의하엿는데 그곳에서 가결통부아 동안의 승인되는 경우에는 김씨의 경영대로 될것이며 부인되는 때에는 동안은 수포로 돌아갈것이라 한다.

崔泰永氏談 이에 대하야 김씨재단을 대표하야 절충중인 최태영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대로 되지아니하야 유감천만입니다마는 앞으로 변호하시어 조속 결과를 얻고저합니다.

儆新、啓聖、明信은 明春生徒募集疑問
今年末까지引繼者없으면

【平壤支局電話】 三十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미슌"회에서 경성 경신학교 儆新學校 대구 계성학교 啓聖學校 명신학교 明信學校 경영방지를 결의하엿음은 기보와 같거니와 종일의 회의에 대하야 다음과 같은 부대결의를 하야 문제는 더욱히 급박화하고 있다.

[附帶決議] 今年十二月二十日까지 三校에 對한 各各 適當한 引繼者가 없는가, 또는 있다하여도 米國本部에서 引繼方法에 對하야 承認이 아니되는 境遇에는 三校校長으로 하여금 明春에 生徒募集을 안하겟다고 發表케함.



空家에襲擊 廿餘圓을빼앗아

시내 방산정 芳山町 四의 … 이하야 빈집을 엿보아 … 九일 동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는데 그들은 전기와 같은 수단으로 절취한 금전으로 … 다수의 거지와 공동생활을 하엿다한다.

水仁鐵道 廿日開通

【仁川】 인천의 명물로 경계 계획중이든 송도수시회사 松都株式會社 는 그간 착착 공사중으로 오든바 廿일 수인철도 水仁鐵道 의 개통식과 함께 개원식을 할것으로 발전인천의 두가지 호화판이 성대히 버러질모양이라 한다. 그런데 이 수인철도는 우지와의 연락에 다대한 봉리가 잇을것이며 송도유원은 피서객에게 지대한 편리를 줄터이라 한다.

列車顚覆犯 尙今未判明

삼보 한남정 漢南町 어부근에서 어떤자가 계획적으로 신행하는 열차를 전복시키려다가 미연에 발견되어 … 일에는 이르지아니 하엿으나 범인은 …

光三千 (2) 望盧峰

옛날 衆은 山우에나리엇엇읍니다. "모세"는 "시나이"山우에서 神의 거룩한 誡銘을 받아엇고 "예수"도 한山속에서 神과 交際하엿엇읍니다.

○

山이란 大地의 情熱의 發露이외다. 땅가슴에 숨겨잇든 情熱이 어떠케 급격한 힘으로써 솟아 나온것이겟읍니까. 山떡대기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마시는 이는 山의 情熱을 잇어서는 안됩니다.

○

山떡대기는 山의 생명이며 山의 象徵이외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아무리 높은 山이라도 崇高家는 하나이오 그우에 오를 사람은 단 하나이외다. 여기에 山의 英雄主義가 잇는것이외다.

○

山은 말이 없다 합니다마는 어찌 神經質的으로 하늘을 향하야 불덩어리의 피를 뿜는 火山만을 煽動家라 하리까. 悠然한 山도 하늘을 우러러 永劫의 바람으로써 宇宙의 깊은 뜻을 말하고 잇는것이외다. 이를 알아듣는 사람이야말로 神에게 대활함을 받은 분이 아니오니까. 우리 凡人도 山에 소사 엇 松籟나마 알아 들을주가 잇다면……

○

人間의 고향은 옛날의 자 … "뮤즈" "사크"에너 태그대로인 山인가보외다. 원숭이의 거죽을 벗은 우리도 所謂文化의 騷音에서 벗어나려할때는 故鄕山의 것이 그리워지는것이 아닙니까.

○

이 고향에서 우리는 "예수"와 같이 "차라투스트라"와 같이 또한번 宇宙와 人生을 생각합니다. 진실로 山은 風景의 "알파"요 "오메가"외다 (러스킨)

朴滿浩氏篇 (文·선)

"도야지"健康打診
慢性豚疫이流行
豚肉잡수시기危險!

도야지고기의 소비가 증을 심명 중에 제일도상에서만 여덟마리 시가는 사건이 발생햇으니 그것은 성성제일도상 京城屠場 에 들어온 도야지중에 만성돈역 慢性豚疫 이 유행하는것을 발견하고 속히 그 번식을 조사햇는바 五월 六월 여섯마리이고 수원도장 水原屠場 에서 두마리나 된다 하야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각 부군으로 통첩을 발송하고 각지로 순회하야 건강진단을 할터이라 한다.

市街道路改修의 用地買收에着手
往十里→敦岩町外六個所에

경성부 공영부 工營部 에서는 수일안으로 시가지계획사업 市街地計劃事業 에 대한 기채인가 가 나오게되엇으므로 一百二十萬圓의 예산을 세운 시가도로개수 市街道路改修 와 一百四萬원의 예산을 세운 도로 개수 사업을 간선 착수하기로 되엇다는바 시가도로 개수사업은 원래 왕십리 往十里 부에서 동서헌정 東西軒町 에 이르는 연장 … 메돌의 수위 남부 간선도로 … 청엽정 靑葉町 서대문 西大門 … 二十八메돌의 도로 … 서 동소문 東小門 에 이르는 연장 一千百二十메돌 … 十五메돌의 도로 태평통 太平通 二정목에서 아현정 阿峴町 … 에 이르는 一千四百六十메돌 도로 폭 三十메돌의 도로등인데 …

그러고 금년도에 계획한 간선도로개수는 전부 七개소가 잇으나 기채인가와 동시에 용지매수에 착수할것은 청량리정 淸凉里町 에서 왕십리 往十里 간의 … 메돌 도로와 … 으로 용지매수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기로 되엇다는데 …

그런데 창경원서 돈암리간은 전차 電車 를 부설하기로 부당국과 경성전기 京電 사이에 양해가 성립되엇다는바 이 도로공사 완료기는 …

昌慶苑→敦岩町 電車도敷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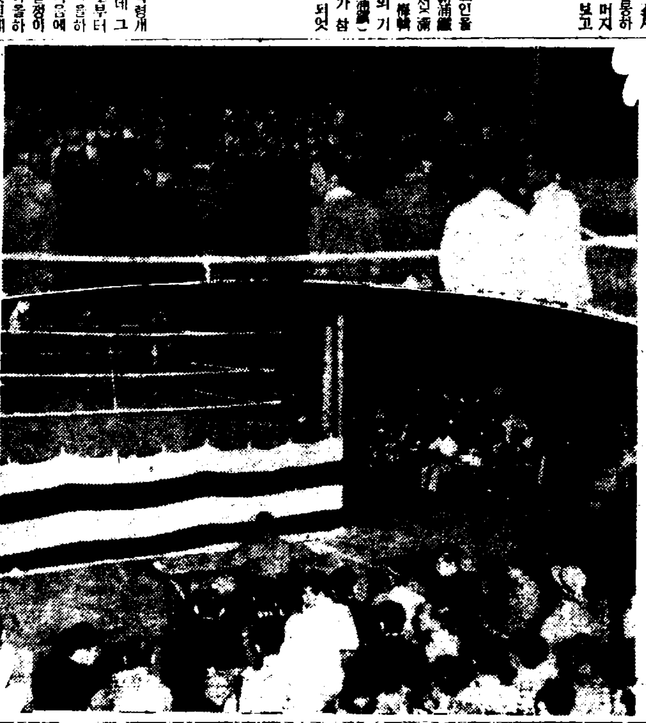
… 왕십리 往十里 에서 돈암리정 敦岩里町 간의 三千四十메돌로폭 二十五메돌의 도로 … 에 이르는 연장 … 제명년 … 에는 전차까지 다니게되어 …

五道에亘한 今年、防空演習

소화十二년 제二十사단 관내에 … 강원 江原 충남북도 忠南北 도의 一부에 〔하야 실시하기로 되엇다. 제一회는 실적이 나타나지안함으로 금번에는 특히 그 점에 유의하야 언제든지 공습을 …

曲馬따라왓다 前罪가綻露

곡마단 曲馬團 에 따라다니다가 잡힌 범인이엇다. 황금정 黃金町 六정목 十八 유근호 柳根浩 (二○)는 지난 三월 二十九일 부내 화원정 화월식당 花月食堂 에 근무할때 손님이 찾어다 달라는 소절수 五十원을 가지고 그대로 경남 부산 釜山 으로 도망하야 은피생활을 하여왓엇는데 六월중순에 세계적으로 진기한 곡마단이 부산에와서 흥행함을보고 이에 혹하야 그대로 동 곡마단을 따라 경성까지 왓다가 六월三十일 오후二시 해마츰 구경갓든 화원식당 여급한테 발견되어 본정서에 체포 되엇다.



아마추어拳鬪接戰 (上、入場式光景、下、첫째회의決勝)

시가 아니고는 될수없으리라고한다.

소문을 중심한 교통은 자못번잡하게될것이라한다.

朝鮮"教育令"改正
普校高普名稱統一等

남총독이 금번 도동하야 척무성과 협의한 조선의 하교명칭통일 소학교와 고등보통하교를 종래의 소학교와 중하교로 하야 식은 총독의 지의인 보양인데 이의사에의하야 하무국에서는 이것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조선의 교육령 敎育令 을 개정하여야 될것이므로 이에관한 것을 입안키위하야 방금 조사에 착수하엿다한다.

이조사가 끝나면 조선교육령개정에대하야 입안케되리라는데 그 내용은 소학교와 중하교를 통일하야 조선인과 일본내지인이 공학을하도록 무방한반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도 내지인과 조선인 소학교 생도의 실정이 실정이니 만치 시기를 엿보아 공학을하여도 무방하도록 하자는것인데 이것의 완전한 실시는 의무교육실시가 아니고는 될수없으리라고 한다.

滿浦鐵道橋 四日着工式

지난三일 일만양국간에 조인을 마친 만포철도 교가설가서 (滿浦鐵道橋架設覺書) 에 의한 만포선 滿浦線 과 만주국철도 매집선 梅輯線 을 연결하는 만포철도교의 기공식은 七월四일 만포진 滿浦鎭 에서 일만양국관계관민다수가 참석하야 성대히 거행하기로 되엇다 한다.

형사들은 "페이스"에 남아잇엇든 지문을 버어어 전과자를 조사하는 一방 모모방면으로 출동하야 용의자검거에 활동중으로 머지안하 범인은 체포될것으로 보고 잇다.

… 지게회에 고의적 이나 만큼 소관용산서에서는 사건발생시부터 헌병대 憲兵隊 용산분대와 서로긴밀한연락을 취하야 범인수사에 활동하엿으나 범소적이 없어나 시 어아직부터 서상이하 사번게다 한다.

스포-츠

熱血戰으로始終된 아마優勝盃拳鬪
決勝戰은四日에
아마추어拳鬪 第一日

全朝鮮아마추어拳鬪協會 主催 一午後七時부터 京城府民館 에서 開催된 第一回 全朝鮮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 는 五十一名選手의 入場式을 보아 會長 … 氏의 開會辭로 開幕되어 …

그러고 參加選手가 多數인 關係로 不得已 決勝戰은 하로를 延期하야 四日(日曜)로 미루고 三日 (土曜)에 一·二·三回戰을 마치기로 되엇다.

◇플라이級 第一回戰

◇밴텀級 第一回戰

◇라이트級 第一回戰

[illegible]

今夜 全朝鮮씨름大會

日時 二、三兩日 七時半 場所 中央基督青年會後庭

主催 中央基督教青年會 後援 東亞日報社

씨름大會
今日青年會에서

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 本社後援의 第十回全朝鮮씨름大會는 今二日午後八時부터 同會館에서 開催하게 되엇는데 …

西署에서調停에出馬
今日부터就業
五日內로 問題解決을 言明

방공훈련은 즉시 방어할수잇는 방화 … 공번의 정신에 측하야 그기초 … 성에 힘써 … 으로부터의 방공 … 연습지역은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등이다.

朝印職工怠業後聞

조선인쇄주식회사 직공五百여명이 태업을개시한데 대하야 소관 서대문서 고등계에서는 그조정에 출마하게 되엇다는데 동서 수등 首藤 고등계주임은 직공들에게 五일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야 줄것이니 그일부터는 조선과 같이 근무하라고 하엿다. 이말을들은 직공들은 내일부터 일제히 취업하기로 되엇다한다.

조선인쇄주식회사 (朝鮮印刷株式會社) 직공 四百六十여명은 一일 오전 작업을 마치고 동맹파업을 하 … 가 일금인상 대우개선 등 조건을 제출한후 조건이 관철되기 전에는 작업을 착수없다고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잇든중으로 동 … 공장에서 근무하는 一방 소관 서대문서에 보고하야 수 … 고등계주임이 계원수명을 대동하고 현장에 출동하야 쌍방의 의견을 청취하며 만一을 염려하야 경계중이라 한다.

동맹파업은 지난 五월十六일 전 직공에 대하야 一제히 승급을 시켯고 또 금번에도 정기승급을 수일내로 시키려고 조사중에 이러케 되엇다고 한다. 一일은 전직공을 휴업을 시키고 극력 회부에 노력중이라 한다.

赤崎專務談 헐안간 이러케되고 보니 내용이 어찌된지 도모지 알수없읍니다. 五일에 승급을 一률로 시키고 수일후 에도 성의가 양호한자에게 승급이 잇을터이엿는데 이러케 되어 유감입니다. 문제는 곧해결되어 내일부터라도 작업을 시작할것입니다. 운운

그날그날

(陽) 七月二日 (金曜) (陰) 五月二十四日 (庚寅)

日出前 五、一五 日入後 七、五七

月出前 ○、○二 月入後 一、二六

滿潮

釜山 前 一、四○ 後 一、二五

仁川 前 一○、四四 後 一一、一三

鎭南浦 前 一二、四○ 後 一二、五○

오늘의天氣 흐렷다개엿다소낙비올다

오늘의運動

▲씨름 第十回全朝鮮씨름大會 第一日 午後八時 中央基督青年會館에서 (入場料 十錢均一)

▲野球 大每主催 … 第二回 午後四時 於京城運動場 (入場料 … 十錢)

山岸 (6—3) 화이트 (6—4) 쿠로트 …

英庭球에山岸組勝勝

… 三十日 … 에서開催된 … 에 參加한 山岸選手는 … 다음과 같다.

教授要目을改正
中等校長會를召集
八日부터十日까지 城大에서

총독부 하무국에서는 오는八일부터 十일까지 三일간 경성제국대하 법문하부에서 각중등하교 교장을 소집하고 교수요목 개정과 제정 教授要目改正及制定 방침에 관한것을 토의하는동시에 금번 문부성 文部省 에서 개정한 교수요목에 관한것을 철저히 실행토록하게되엇다 한다.

즉 교수요목 개정이라함은 현재 조선에서 교수하고 잇는것중 공민 公民 조선어급 한문 漢文 실업 實業 체조 體操 등 四과목은 특수과목이므로 이것만은 제외하고 그외의것은 소화六년 문부성령에 의하야 개정되엇으므로 조선에서도 이것을 시하야개정한 새교수요목에 의하야 실행할 시하게된것이다.

그리고 조선독특한 공민, 조선어와 한문 실업, 체조등 과목에 대하야 개정한 새교수요목에 의하야 발표로서 하무국에서는 상당한 요하리라 한다.

府民의健康增進위해 "保健所"를新設立
明年度부터 四十萬圓으로
府民과開業醫에便宜를提供

경성부 위생과 (衛生課) 에서는 명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년의 현안으로 되어잇든 보건소 (保健所) 를 설치하게되음 세우고 그예비로 되엇다 한다.

한 조사연구를 진행중이든바 이미 그것의 설치에대한 국고보조 (國庫補助) 까지 요구하기로 되엇다한다.

그예산으로는 약四十萬원을 계상하고 잇다는데 그중 一부분은 민간독지가의 기부라도 받어볼생각이라는바 보건소란 외국에서는 일즉부터 "헬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야 적극적으로 국민건강 國民健康 을 증진하는데 중대역활을 하여왓으나 조선에는 그에대한 법령 法令 이 아직 나타나지안하여 지금까지 그러한 기관이 없엇는데 오는특별회계 特別會計 에서는 그법안이 제출되어 못파렴것이므로 이것을 기회로 하야 경성부에서는 창설하야보기로 된것이라한다.

보건소의 목적은 부민의 체위향상하기위하야 지방 (鄕位) 를 향상하기위하야 지방에서 보건상 (保健上) 필요한지도를하기로 된것인데 그곳에서 수행할사업이란

一、衛生思想普及

二、榮養改善及 食料品衛生에關한指導

三、衣服住宅 其他環境 衛生의改善에關한指導

四、妊産婦、乳幼兒의 衛生에關한指導

五、結核豫防을爲한 健康相談

六、"도라홈"、寄生蟲病、花柳病等 豫防에關한 相談

七、傳染病豫防에 關한 相談

八、理化學的細菌學的檢査에關한 相談及指導

九、其他 健康增進에 關한指導

등이라한다.

이사업을 수행하기위하야 명년도에 보건소가 나타나면 현재 부청안에잇는 위생시험소 衛生試驗所 는 없에고 보건소내에 건강상담소 (健康相談所) 이화학적 세균학적 理化學的細菌學的 검사실비 "렌트겐"설비등을 하야 일반부민으로하야금 널리 이용하는 동시에 일반 개업의들의 이용에도 제공할터이라한다.

ClibPDF - www.fastio.com

社說
輸入制限의 效果
物價만 더 騰貴시키지 안흘까

一

向者 吉田前商相이 前任勞相에 吉田商相과 共同聲明으로 所謂 財·經三原則을 發表하야 一時 世人의 興味를 자아내든것은 누구나 다아는 事實이다. 그 興味라는것은 前內閣의 馬場、結城兩藏相의 대중없는 輸入增加의 途行으로 各種物價의 暴騰에 非常한 不安을 느끼든 나머지의 無形的 群衆心理의 一時的 氣分問題에 不過한것이엇다. 그리고 그交替에 豫想되엇든 心理狀態가 希望하야 政策하게된 때에는 다시 「豫算」의눈으로써 賀屋藏相의 所謂 財·經三原則을 對하게되엇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馬場、結城兩藏相의 輸入財政의 反映으로 物價가 急激히 暴騰하고 物價暴騰의 必然的歸結로 大衆의 生活不安、財政의 途行困難이 非常한 이때에 賀屋藏相은 果然 如何한 方策으로써 生産力의 擴充이니 國際收支의 適合이니 物資需給의 調整이니하는 所謂 財經三原則을 實行할수가 잇을까하는 一種의 疑問을 품게된 까닭이다.

二

그런데 最近의 東京電報에 依하면 賀屋藏相은 明年度豫算編成에 當하여서도 國防豫算의 膨脹은 不可避라고하야 陸、海軍의要望은 可及的 容認할 意向이라고 傳하다. 그러면 此際에 賀屋藏相으로서 關心하게될것은 一尨大豫算을 編成하드라도 必要한 物資가 國內나 또는 海外로부터 取得되지 안는때에는 豫算은 事實上 施行하기 不能할터이므로 따라서 國內物資需給의 根本을 徹底히 調査하는것은 此際에 喫緊한 必要事로 할것이며 또 物價問題도 이와 密接한 關聯이 되는것이므로 徹底히 研究하여야 할것이다. 二、國內의 供給으로써 需要에 不應되는 境遇에는 外國의 物資를 輸入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이경우에는 日本當局의 對外基準을 維持하기 爲하야 金의 現送을 避하여야 될터이다. 그러나 産金額에는 限度가 잇기때문에 無制限하고 輸入을 할수는 없게된다. 따라서 輸入制限을 強化하지 안흘수 없는것이 必然的歸結이다. 이것은 아마 物資需給관계와 運行에 따라오는 必然的歸結이다. 이것은 아마 當局의 明年度豫算編成을 앞두고 研究한 結論인 모양이다.

三

다시한번 더 冷靜히 생각하여 본다면 輸入制限을 斷行한다는것은 一般物資를 均衡하게 輸入制限하는것이 아니라 馬場藏相時代에 시작한 輸入爲替許可制를 延長強化하야 어떤物資에 對하여는 絶對必要하다는 理由下에서 可謂 無許可로(卽 無制限으로) 輸入하고 其他의 物資에 對하여는 비록 그것이 日常의 生活必需品에 屬한 物資일지라도 가장 緊切하게 國際收支를 適合하여야 된다는 理由로써 그 輸入을 制限、乃至禁止하게된다면 그 結果는 果然 어떠케될까? 이것은 누구나 물론 없이 一般消費者의 價格은 品質低下로 더욱더욱 올라갈뿐만 아니라 없이될것이다. 이것은 決코 杞憂가 아닐것이다. 馬場財政時代에 이미 試驗하야 그 結果로 기운과 一般大衆의 生活不安은 크게 느끼고 잇는 事實이다. 다시말하면 賀屋藏相의 輸入制限을 斷行하려는 것은 必然的으로 物價만 더 騰貴시키게 되리라고 보인다. 國民의 根本은 輸入制限보다도 緊縮財政을 斷行하는데 잇다고 생각한다.

近衛內閣
特別議會直後
退陣等의 浮說一蹴
首相周圍의 積極意見

【東京二十九日發電】 政府는 臨時物價對策委員會、中央經濟會議와 制度調査會等의 委員을 補充決定하고 此等委員會의 初會合을 行하자 同時에 他方目前에 迫到한 特別議會에 對하야는 第七十議會에서 審議未了로된 諸法案을 中心으로하야 提出하고 할수잇는限 이것을 事務的으로 終了시킬 意向인데 現內閣 獨自의 政策이 모두 今冬의 通常議會에 넘어가므로 一切의 政治問題는 特別議會를 契機로하야 發生하고 對政黨關係의 轉換、新黨問題의 擡頭도 豫想되는 外에 物價問題와 및 來年度 豫算編成等의 重大問題에 直面할터로 政府가 此等에 如何히 對處할지 現內閣의 前途를 점치는 엇쇠는 이時期에 包藏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고 世上一部에서 近衛內閣의 運命에 關하야 特別議會直後 退陣하지아니할가 하고 臆測하는 傾向도 잇으나 近衛首相의 周圍에서는

現內閣의 主義主張은 實現할것은 通常議會이 以上 이러한 浮說은 一蹴하고 積極的으로 政治的難關을 打開하야 그使命을 다하어야될것이다 그러므로 速히 獨自의 政策을 樹立하야 確固한 方針下에 邁進할것이라 하고 積極的意見이 行하고잇는 模樣으로 政府는 特別議會後 更히 通常議會로 邁進하리라 觀測된다

世界經濟復興에
米國樂觀的態度
헐長官言明、米政界觀測

헐國務長官

【華盛頓三十日發同盟】 米國國務長官 헐氏는 三十日午前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 臨하야 英大統領、반질란드 兩氏의 共同聲明을 敷衍하고 米國政府는 世界經濟安定、軍備縮少에 協力할 用意가잇다고 如左히 聲明하엿다 現在 世界各國은 軍備擴張에 걸리어 非常히 危險한 狀態에 잇는바 如斯한 事態의 代身으로 國際關係를 平和的으로 調整하야 強化할時期는 이미 充分히 成熟하엿다는 點이 米國內에 擡頭하게되엇다 米國政府는 이미 昨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米洲諸國과 充分히 協力의 基礎를 確立하엿다 世界條約은 모두 局地的性質을 明記하나 世界各地에 그대로 適用할수잇다고 思惟한다

米國政界消息側은 以上의 헐國務長官의 言明에 對하야 如左한 觀測을 내리고잇다

一、헐國務長官은 米國政府가 世界經濟復興에 對하야 某種의 決定的對策을 準備하고잇는 與否에 對하여는 言明을 避하고잇다

二、그러나 헐國務長官이 世界經濟復興에 對하야 비로소 樂觀的見解를 내린것이라고 하야 注目할만하다

軍事視察次로
楊虎城氏外遊

【神戶三十日發同盟】 昨年末 全中國을 震撼시키든 西安事變의 首謀者 張學良氏 部下의 上將 國民黨中央監察委員 楊虎城氏夫婦는 一日 午前九時半 郵船 龍田丸로 神戶着、同日午後四時 橫濱으로 向하엿는데 氏의 外遊는 歐米軍事를 視察하기爲하야 約一個年 歐米를 巡歷하는것이다

船室前에는 部下二名을 守直시키어 警戒가 嚴重하엿다 旅客棧橋에는 健康한 姿態를 나타내고 「몸도 健康하며 歡迎의 意味에 感謝하고 船室에 對하야는 거부하얏스나 私設秘書를 通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日本에는 一九二二年 東京에 滯在한일이잇으므로 이번으로 두번째다

間島總領事館
一分館遂閉館

【龍井三十日發同盟】 間島領事 總領事館 管下의 滿、吉林滿洲領事分館은 三十日限 閉館되엇다 兩分館은 共히 明治四十二年十一月 日中條約에 依하야 開設된바 其間馬賊의 襲擊과 其他變亂의 渦中에 섯은 二十九年의 歷史를 남긴것으로 閉館式은當日午前十時부터 行하엿다

繼續的增加하는
昨年度世界工業
獨逸景氣研究所調査 (二)

兵器工業 製造工業에서 가장 顯著히 發展한것은兵器製造工業이다 適確한 數字를 엇을수잇는것은 限定되고잇는데 例하면 世界主要海軍國의 一九三五年의 建造中軍艦噸數는 一九二九年에 比하야 三十八%가 만하고 그後 各國의 海軍擴張計劃에 따라서 더욱增加하고잇는것은 勿論이다 또英、米、伊、蘇에서 建造된 航空機數는 一九二九年부터 一九三六年까지에 二倍以上으로되엇다 獨逸景氣研究의 調査에依하면 世界의 軍事費總額은 一九二六年의 百五十億마르크에서 一九三六年에는 三百五十億마르크로 增加하엿다

世界兵器工業生産指數 (一九二六年＝一〇〇)

	軍艦	飛行機	軍事費
一九二六年	一〇〇	[illegible]	[illegible]
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〇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概算			

(獨逸景氣研究所作成)

生産財生産工業 生産財生産工業도 一九三六年을 通하야 顯著히 伸張하엿다 機械類의 生産은 世界수準을 平均하야 이미 一九二八年의 水準을 넘고 特히 日本의 機械類生産은 今日 一九二八年의 倍以上으로되엇다 또 自動車工業의 生産增加도 注目되는데 一九三六年中의 世界自動車生産高는 一九二八年에 比하야 約十七%가 增加되엇다 造船工業도 一九二八年의 水準을 突破하게되엇는데 他方고무製品、製紙工業은 이미 過去의 最高水準인 一九二九年의 地位를 회복한 것이다

消費財生産工業 消費財生産工業도 今年度로 强한 上向步調이다 特히 織物工業의 生産도 增加하야 一九三六年은 一九二九年에 比하면 十四%가 만타 同樣의 上昇步調는 식료품工業에서도 엿볼수잇다 食料品工業은 大體人口增加와 步調를 合하고잇는데 煙草或은麥酒의生産은 이미 一九二九年의水準을突破하엿다

「舊」工業國의 後退와 「新」工業國의 進出이라는 傾向이 相當히 分明하게된것이다 各國의 經濟政策이라는 點으로 보면 通貨操作에依한 工業生産의 增大에 關하야는 特히 英國에 言及치안흘수업다 英國의 産業界는 金本位離脫後 顯著한 回復을 보이엇다 同時初期에서는 民需産業의 增大에 依한것이 나 最近에는 軍備의 充實이 有力한原因으로 되엇다 수量으로보면 一九三六年의 工業生産은 이미 一九二九年의 水準에 比하야 約十六%가 높으며 戰前의 水準도 넘게되엇다 其他 瑞典、芬蘭、에스토니아、希臘等의 諸國에서도 工業生産은 모두 一九二八、九年의 水準을 넘고잇다 米國도 이一、二年 急激한 回復을 實現하엿다 여기에는 通貨或은 金融上의 景氣政策과 함께 通貨操作에依한 工業生産의 水準에 二十九%나 不及한다

佛國의 水準에 二十九%나 不及한다 同樣 一九三六年中의 波蘭의 工業生産을 一九二九年과 比較하면 二十八%가량, 和蘭의 工業生産은 亦是 三十三%가량적다 그런데 自由主義는 체코슬로바키아等과 같이 데플레이숀政策을 일즉 放棄한 나라의 工業生産은 一九三六年中에도 이미 相當히 回復하엿다 公共事業計劃 또는 通貨金融政策以外에도 生産活動을 左右하는 것이엇다 그것은 各國經濟의 構造上의 差違라고도 할수잇는데 이點에 關하여는 蘇聯邦과 日本의 躍進이 注目된다 日本에서는 金融、財政의 景氣政策과 相俟하야 生産費에 關한 有利한地位가 工業生産의 增大에 큰힘으로되엇다 日本의 工業生産은 一九二九年부터 一九三六年까지에 約八十一%增加하야 歐洲大戰前에 比하면 實로四百%의 增加다

其他 歐洲以外에서는 英領印度、濠洲、南阿聯邦等 또 歐洲에서는 스칸디나비아諸國의 工業生産增加가 顯著하다。또 北歐諸國과 다같이 東南歐諸國의 工業生産의 發展도 注目된다。(끗)

世界生産財及消費財生産指數
(一九二六年＝一〇〇)

	建造中船舶	自動車	紙類	고무製造	織物	靴	煙草	麥酒
一九二六年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〇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逸景氣研究所作成 一九三六年은概數)

國別로보아서

國別로 世界의 工業生産을보면 二個의다른方向이 보인다。卽 一方에서 各國의工業生産이 各國의 經濟政策에 따라서 相違하고잇는 것은 勿論이나 다시 他方에서는 一은 活潑한失業救濟 或은 公共土木事業의 遂行、各種의 通貨操作等이 注目될것이다。景氣回復策으로서의 公共事業計劃은 거의各國의 採用하는바인데 就中 獨逸、伊太利等에서 顯著하야 工業生産은 이에依하야 不少히 增加하엿 大規模의 公共土木事業이 有効한 것은 否定하여서는 안된다 以上의 諸國과는 反對로 所謂金本位블록에 屬하고잇든 諸國의 産業界回復은 顯著히늦엇다 例하면 佛國의 工業生産은 一九三五、六年에서도 오히려 一九二九年

國際鼠君名唱大會

國際鼠君名唱大會가 五月二日倫敦放送局에서擧行되어 〃에디〃夫人의 〃미키〃와 〃게일〃夫人의 〃크리시〃가 優勝하엿다。加奈陀와 〃아리노이스〃(米國)로부터 參加한 鼠君도 잇어서 이들은 〃마이크〃를 通하야 挑戰하엿다。〃에디〃夫人이 〃미키〃를 잡기에는 晝夜十日間 걸렷고 쌀을 먹여 기르고 잇는것이 話題가 되어 잇다。

歸國命令拒絶한 蘇聯兩科學者

蘇聯의 Y·N·이파첸프、A·E·치치바빈 兩科學者는 海外로부터 國內하라는 命令을拒絶하엿기때문에 中央執行委員會로부터 市民權을 剝奪하엿고 今後의 蘇聯入國을 禁止하엿다。兩氏는 蘇聯科學 〃아카데미〃全員으로서 海外에 留學中數次의 歸國命令을 無視하고잇다가 그籍을 拋棄하게되어 昨年十二月〃아카데미〃會員資格이 抹殺되엇섯다。

中繼放送

東歐羅巴의 猶太人問題 (一)
米國포린·아페아誌에서

歐洲 에 居住하는 千五百萬의猶太人中에 約九百萬은 同大陸의 東半部、卽 인河와 우랄山脈間의 都市及不野에 分布되어잇다。獨逸에 잇어서의 나치獨裁政權의 政策이 過去四年間을通하야 此等猶太人全體의生命에 時影을던지고잇엇다 그때까지는 그猶太人들은 獨逸서 보는바와같은 그러한組織的形式의 反猶太人運動이 外國으로는 擴延되리라는것을 믿으려고하지아니하엿

破門 放逐당한것은 不可評論할事實이고、이와같이하야 他國에까지도 積極的反猶太運動의危險한 先例를提供하엿다。二百年前에는 全歐洲의猶太人들은 거의同一한心境에서 옹

다。하지마는、五千萬의人民이 다만 猶太敎를信奉하고、所謂〃猶太〃種〃에 屬한다는 單純한理由때문에 高度로開明되고 世界에卓越한地位를保有한 歐洲의 一國民에게

猶太 人은 박서 뭉쳐 한 同類的 大衆을 形成하지는 못하게 되엇엇다。解放이 漸進하는데 따라서 猶太人間에 顯著한分裂이 생기게 되엇엇으니 박서 統一的 東歐猶太社會를 말하기는 不可能하엿

지이고잇엇다。보름쓰猶太人은 렘베르그나 키시네브에서 곽 自己집에잇는것같이 感覺하고 잇엇다 그는 그同敎徒들이어디 살거나 相關할것없이 그들사이에서 同一한 文化的背景과同一한 生活條件을 發見하엿엇다。그리고 그는 舊約聖書과 라비(猶太敎敎師)의 敎說에 基因한 宗敎가 살어잇는힘이라는 것을 當然無疑之事로 알고 잇엇다。그러나 戰前의 歐羅巴에서는 그것은 박서 事實은아니게 되엇엇다。東歐羅巴의 九百萬

基督 敎的同胞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近代的文獻은 그것을 否認하지마는。그러치마는 帝政露西亞에 잇어서는 그들은 그主人되는國民과 同胞로서 가지지못하엿엇다。그리하야 그들은 그獨自의 言語와習慣을가지고 一個別民族을 形成하야 政府에 내려왓엇다。例를들면 匈牙利猶太人은 英國著作家 배카트니氏의말에依하면 지금은 專門學者外에는 그들을 辨別하지못한다 잇으니 그들의知力과 外貌는 歐世紀동안 一般마자르人에게 同化되엇엇다。그들의 精神、知力은 勿論이어니와、그들의 外貌까지도 마자르人에게 同化되엇엇다。維也納의 猶太人들에 對하여서도 同樣으로 말할수잇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뭉쳐한 猶太人으로서 自身의 國籍을 拋棄하지아니 하엿엇다。

나치 政權出現前에 발서 獨逸社會에 잇어서 實際에잇어서 그들이 합스부르그治下에잇는가 또는 로마노프治下에잇는가 하는 事實이 戰前에는 東歐 猶太人의 二大部類를 區別하는 便宜手段이엇든것이다。그러치마는 戰後에는 獨逸

사람들은 猶太人을 取扱하기를 거의 同等하엿던 反猶太運動의 原因된 그들의 同化를 妨害하엿다。그러나 獨逸猶太人이라는 것을 알지아니하면 아니되게되엇다。그러나 多幸히 猶太人에잇어서는 합스부르그家의 寬容의 傳統과 平等에對한 內在的 統一 武裝과 自由主義의 聲援한 傳統때문에 이들은 反猶太運動을 獨逸서보는바와같은 모양

戰後 에 오스트리아가 一의 公式 分立獨立國家에 잇어서 國民은 大概 猶太人이 取扱되엇든 不寬容이 가아니면서 自由的 民權을 取하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엇다。十九世紀自由主義의 大成果로는 〃法律앞에는 萬人이 平等이라〃는 原則이 지금 東歐諸國의 卽 獨逸、匈牙利、유고슬라비아、波蘭、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및 바르틱諸國及 露西亞에 잇어서 猶太人에게도 適用되는 것은 事實이다。그러나 此等國家의 大部分이 猶太人에게 對하야 社會的으로 不公平한 差別的 行動을 行하는것은 事實 實狀化한다。」

不干涉體裁에서
獨、伊同時脫退
西班牙內亂과列國 【三】
高永煥

도이칠란드號事件

이제는 西班牙의 內亂을 둘러싸고도는 歐洲列國의 最近動向이 어떠한가를 알기爲하야 約一個月前에 發生한 도이칠란드號事件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자。五月二十九日 獨逸軍艦 도이칠란드號가 발레아레스群島中「이비사」島의 앞 海上에서 碇泊하고잇든中 그 飛行機가 날아가는것을 發見하고 卽時 轟炸하는것을 發見하고 卽時 서로 戰鬪를 하게되자 飛行機에서도 應戰하야 한참동안 空中에서 猛烈한 爆擊戰이 벌어지자 사이에 마침 마요르카島(赤色政府의 근거지)와 이비사島의 獨逸艦隊가 함께 기다리든 中 이에 應戰하야 戰死者 三十名을 내엇섯다。

그러한結果로 獨逸政府의 發表에 依하면 도이칠란드號의 水兵中에 死傷者 百餘名이 나게되엇섯다。事實은 도이칠란드號에서 먼저 飛行機를 向하야 發砲하기 때문에 事件이 發生하엿음에도 不拘하고 獨逸政府와 및 獨逸軍艦의 責任을 全部 西班牙政府의 飛行機側으로 뒤집어 씌웟다。卽 「西班牙共和軍 飛行隊가 數日前에 마요르카島의 港灣에 碇泊하야잇든 英、佛、伊、獨國艦船을 爆擊하야 伊太利軍艦의 將校 六名이 戰死한以來 獨逸政府는 自國의 艦船에 對하야 不法爆擊을 하지못하게하라고 不干涉委員會에 提訴하엿다。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도이칠란드號事件의 責任은 所謂 赤色政府에잇음을 再三强調하엿다」고 公表하엿다。그러고 獨逸政府는 이러한 態度를 고치지 안키때문에 獨逸政府는 不干涉委員會에 對하야 極히 慎重(!)한 態度로써 不干涉委員會에 對하야

한것인데 不法爆擊을 宣傳하엿다。그리고 발렌시아政府에 對하야는 絶對로 「발렌시아政府와 및 獨逸政府는 不干涉委員會와 및 獨逸政府의 訴에 從事하는 西班牙政府의 軍艦을 攻擊하지 말라고 再次 警告하는 同時에 飛行機를 正당하게 대하야 獨逸政府에 對하야 「도이칠란드號事件 後 强硬한抗議나 提出하야 委員會의 措置를 기다린것 같엇다。그러나 及其也에는 獨逸側도 어느便에서 먼저 싸움을 걸엇던지間에 이 도이칠란드號事件으로 因하야 自國軍兵의 百餘名이나 死傷한데 對해서 報復手段을 쓰지안코는 憤이 풀리지안헛던지 五月三十一日 새벽에 어르러서 獨逸艦隊司令長官 레더提督의 命令으로 獨逸艦隊

中海上에잇는 獨逸軍艦四、五隻은 西班牙의 알메리아港(要塞)을 向하고 一齊히 砲擊하엿다。그結果 알메리아港은 可謂 수라장을 當하다시피 되엇다。그리고 亦是 이날(五月三十一日)에 伊太利軍艦(潛水艦)도 바르셀로나의앞 西班牙領海內에서 西班牙의 商船을 襲擊하야 乘客五十餘名이 빠저죽게되엇다。

獨、伊의 不干涉委員會脫退

이와같이 獨逸軍艦의 알메리아港砲擊事件이 發生되자 發生되자 발렌시아政府는 即時 聯盟代表 델·바요氏에게 訓令하야 緊急理事會를 召集하여달라고 要請하엿다。그러나 獨逸政府는 그러케할 필요를 할틈도없이 獨逸政府는 그 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아 도이칠란드號事件에 依하야 獨逸側에서 生命의 犧牲이 엇게된것은 勿論 不干涉委員會에서 脫退하기로 하엿으며 伊太利政府도 亦是 같은날인 三十一日에 不干涉委員會에서 脫退하기로 決定하고 다음과같은 要旨의 聲明書를 發表하엿다。

「西班牙赤軍의 飛行機는 不干涉監視에 從事하는 獨逸、伊太利兩國의 軍艦을 砲擊하엿다 伊太利政府는 이事件으로 보아서 不干涉委員會가 事件의 反復을 阻止하기 爲하야 充分한 手段을 講하고

二、 但 獨逸政府는 발렌시아政府의 攻擊과 交戰狀態에 잇다고는 생각지안는다。

三、 獨逸軍艦은 알메리아의 報復爆擊에 依하야 事件은 一段落되고 이以上 事態의 擴大를 要求치안는다。

四、 但 前週의 伊太利軍艦爆擊이라던지 또今番의 도이칠란드號事件이든지 西班牙政府軍의 顯著한 暴擧(?)로 因하야 不干涉委員會의 步調가 紊亂하게된것은 否認하기어렵다。

大體 이와같은 態度엿다。이야말로 笑殺하리만치 나의 해들을 때리고 도리어 트집을 잡아서 한바탕 때리고나서는 決코 싸우는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시침을 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수잇을까?

이 委員會에 不參加치안코 自國軍艦은 國際監視에서 撤收한다」

寫眞은 白樺 叢生한 高原을 進軍하는 波蘭騎兵隊

農村工業技術
指導所設置
◇…農林省의新計劃

【東京新聞同盟】 農林省에서는 最近 農村工業의 異常한 發展에 伴하야 工業技術指導敎育의 必要를 痛切히 느끼고잇는데 從來이외같은 機關으로서는 雪害地方 農村經濟調査所(山形縣 及 二、三府縣에 設置한 農村工業試驗所以外에는 獨立한指導所가없어 이新設을 一般으로 要望되어잇는데 今年度 豫算으로右의 工業指導所設置費가 承認되고 그後敷地에對하야 여러가지로 考慮中이든바 이제 東京市杉並區 高井戶에 設立하기로決定하엿다

初政務官會議
今後는水、金兩日

【東京新聞同盟】 近衛內閣에서의 처음의 政務官會議는 三十日午後一時에 首相官邸에서 開催하고 伊藤書記官長을 除하고 全員出席하야 午後 諸事에 對하야 近衛首相은 一般政務奉上 어가 最初이엇으므로 首相 의 人事는 次回로 미루고 官長의官會下에 후리토-킹을 施行하야 政務官制度運用에 關한 率直한 意見의 交換을 行한結果

一、政府와 民衆의 接觸을 圓滑히는것은 現下의 最緊要事다、政務官制度의 適當한 運用에 依하야 兩者의 連絡에 寄與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一、近衛內閣은 그成立의 前提로 보드라도 旣存의 議制度를 그대로 踏襲할것은 아니므로 政務官制度의 運用에 關하야는 適當한 方策이 絶對必要하다

라는 意見에 一致를 보앗으므로 各省政務官은 右에 對한 具體案을 至急調査하야 書記官長의손에 提出하기로하고 同二時半 散會하엿다 또 今後의 定例政務官會議는 每週水曜(正午)金曜(午後一時半)의 兩日에 首相官邸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政務官의 定例會議는 各省의 連絡에 依하야 各員의 一茶나리 合의 聚會 一個하기로 되엇다

內外短信

廣國學生의 色內衣

〃…〃후 마니아〃에서는 學生의 政治運動이 猖獗하야 그黨派에 依하야 各其 色內衣를 制定하고 잇엇다。卽 〃바이디스트〃는 綠色、〃쿠자스트〃는 黑色、〃아베레스칸〃은 黃色、國民衛兵隊는 靑色、十字軍은 褐色、民主靑年團은 赤色이다。

그러고 最近 政府는 色內衣全部의 着用을 禁止하엿으므로 모두 灰色內衣만이 合法的色彩가되엇다

ClibPDF - www.fastio.com

南部版

地方論壇
博物館擴張案 失敗를보고
慶州支局 一記者

慶州郡內의 名勝古蹟保存會 近三十名으로 組織된 慶州博物館擴張期成會는 그間 一二人의 不休不眠의 活動도 水泡에 도라가고 古蹟으로 그의 保存을 圖謀하여오든 慶州郡當局도 엇지고 그의 素地는 殆無하얏고 新羅古都로서 不遠한 將來에 看板조차 維持치 아니하면 아니될 運命에 일으고잇다. 公職者들만을 믿고잇든 一般郡民은 그게 놀래어 地方의 重大問題로서 輿論이 沸騰하야 여기에 重大한 社會的 責任을 가진 公職者, 有志, 官民과 有志로서의 責任을 感하야 한번 다시 한번 責을 면치 못하고 잇다.

慶州郡民의 자랑인 古代文化의 光彩잇는 遺蹟이라고 하여도 過言이아닌 古墳, 遺物이 博物館의 擴張을 必要로하든 保存策이 이에 擴張期成會의 組織을 보게된 것이다. 그러나 郡民이 한가지로 不可不 이를 힘써 不拘하고 期成會의 組織은 去月二十日에 扣해 期成會 총會를 열고 四, 五名이 實行委員으로 出張을 하엿스나 그 後 實行委員의 責任을 느끼게 된 것도 아니하야 不得已 내지 아니하야 事實上 결론을 마지안케하엿다.

×

所謂 公職者의 態度이 果然 그와같이 無知하야서야 어찌 慶州의 體面 또는 古蹟保存의 完成을 期할수잇으랴?

地方民의 立場이 如何하든지 吾不關하고 그 責任에 對하야 期成會의 當局者로서 保存策에 對한 方針을 圖謀하는 指導的 立場에서 그리하려니와 지나간 過去의 決定의 큰 것을 마추고잇는 慶州民에게도 愛鄕의 精神을 가질 必要가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되는것이 아니 될 問題가 아닌가. 그러한 無責任하고 無關心한 公職者로서 將來의 問題를 맡길수 있는가? 이 責任을 分明히 하고 責任者를 들어 다시 한번 社會에 나타내어야할 것이다.

그들은 하는일이 이미 그러하니 앞으로도 이렇다 할 것이 없을 것이나 各各 責任의 所在를 밝혀 一般이 滿足할만한 方針을 세워 新羅千年의 文化를 保存하는 데 힘쓰기를 바란다.

六月末現在移秧 十五萬町步突破
금춘이래이앙이순조되여
全南道의 稻作狀況

【光州】 전라남도내에는 금춘 이래로 우순풍조하야 一반 이앙(移秧)작황이 비교적 순조로 진행되는 중이라는데 지난六월 三十일까지에 이앙하여버린것이 十四만九천九백 十七정三단 이라는데 이것을 이앙예상의 총면적인 十九만六천정보에 비하여보면 七할 六부三리가 됨것이다는데 이제 발서 이앙면적을 각군별로 보면 여좌하다고 한다.

府郡別	六月末日移秧濟面積
木浦府	三六六反
光州府	一、四二〇
光山郡	九〇、〇八六
潭陽郡	七一、一〇七
谷城郡	三五、四〇四
求禮郡	一九、四六〇
光陽郡	四四、四五二
麗水郡	四九、五九九
順天郡	九四、一七三
高興郡	八二、〇〇〇
寶城郡	九三、五九九
和順郡	四〇、七八四
長興郡	七七、〇〇七
康津郡	八一、五二二
海南郡	一二八、一五〇
靈岩郡	八九、五五五
務安郡	七七、五〇〇
羅州郡	一四一、四九七
咸平郡	六一、七七二
靈光郡	八四、八一八
長城郡	七八、五八七
莞島郡	二〇、四六七
珍島郡	三九、二八三
濟州島	一、五九三
合計	一、四九九、一七三反

아즉移秧하지못한 五萬町步는天水畓
一般農家는甚히憂慮

전라남도내에서는 十四만九천정보를 六월말일까지에 이앙하엿다고함은 별항보도한바어니와 아즉도 이앙치못하엿다는 약五만정보는 천수답(天水畓)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강우량의 비가오지아니하면 이앙을 하기어렵다하야 一반농민은 조석으로 하날을 처여다보면서 비가오기를 고대하고잇으나 연일 날이흐리며 세우(細雨)는 뿌리고잇으나 비다운비가 오지아니하므로 가슴을 조리고잇으나 七월이 넘어가며 비를바라고잇으나 七월에 비가아니오면 날이업다는것으로 큰 걱정이라고 한다.

四十萬圓豫算으로
第二水源工事進行
하류에는 배척비폭도 만들터
光州府의 水道擴張

【光州】 광주부에서는 종래에 상수도수원지의 수량이 부족하야 하기의 수용에 계속되어 一부 시민의 고난을 만흠에 대하야 시간급수를 단행하게되야 수만은 불편이 막심하얏으므로 부당국에서는 광산군 서방면 무등산(無等山)아래 증심사 리에 제二수원지를 설치하려고 금년부터 기공하야 총공비 四十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이라는데 사가지의 공사가 완성되면 十二만명이 一일에 소요된다는 급수를 한다는데 그 수원지는 하류에다가 배척단에 인조폭포를 만들어 광주시민에게 유원지로 제공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그수원지의 하류에는 경보도 설치하야 부근의 시민이 一대위관을 정하게하리라고 한다.

旱魃이나은殺人劇
논에물대이다가 늙은農夫를죽여
물을대이랴다가 싸홈을하다가

【鎭永】 창원군 대산면 제동리 김(金)모 (仝)는 지난二十七일에 그 논에 물을 대다가 같은동리의 이웃사람과 물싸홈을 하다가 서로 싸홈이 되었던바 대산면 부근에서 一명이 인하야 농부가 중상을 당하야 병원에 입원 중이던바 사망하엿다한다.

進永에서생긴慘事

【進永】 김해군 진영읍 진영리 (河川郡) 구흥안(具興安)은 지난二十七일 오전 마을 고생하든 마지막에 간사한 사람으로 시비가 생기자 필경 상대방을 구타하야 사망케하야 목하 진영서에서 취조중이라 한다.

長湍地方에 黃蛾 猖獗
밭마다出亂舞에

【長湍】 경기도 장단군 지방에는 작년에도 노랑나비 (黃蛾)의 습격으로 일반주민의 고통이 막심하엿는데 금년에도 여시 노랑나비가 창궐하야 주민들 이 대개하다는데 그 노랑나비는 밭마다 떼를지어 무수히 몰려와서 난무하는데 그 나비가 지나가는 곳에는 곡식이 남지않는다 하야 농민들은 걱정이 적지 아니하다 한다.

男便따싸우다 結項自殺
시어머니와는말다툼 죽엄으로써對抗
可憐한少婦의自殺

【安東】 부부 싸움끝에 분을 참지 못하야 자살한 사건이 지난 二十七일 오후 시내 동부동에서 일어낫다. 즉 안동읍 동부동 김(金)모의 처 김씨(金氏)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분을 참지 못하야 자살하엿다고 한다.

【秋風嶺】 황간면 시어머니와 구박을 견디지 못하야 며느리가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이 잇다. 황간면 상촌면 (影響을) 김복만 (金福萬)의처 이또언 (李又彦)이 지난二十九일밤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가 독하다고 자살하엿다 한다.

開城飮食取締

【開城】 개성경찰서에서는 전염병 유행의 시기를 당하야 사고발생의 예방을 시키고자 음식점 각처에 대하야 부정한 음식판매를 하는 자에 대하야 엄중히 취체하기로 하고 있다는데 지난 달 중에 적발된 건수가 상당하다 한다.

中國人男女가 阿片을密賣
仁川署兩名逮捕

【仁川】 인천에 또 아편밀매사건이 발생. 즉 부내 미생정(彌生町)에 사는 중국인 정윤기(鄭潤起)(三○)와 중국인여자 임씨(林氏)(二八)의 양명은 자기들도 아편중독자이며 또 아편을 밀매하여 연명해온 것이 인천경찰서에 체포되엇다는데 그들의 밀매건수와 판매는 상당한 분량으로 인천서에서는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기상추(氣象秋) 이수하야 생활비를 벌고잇다가 의외의 죄명을 당하엿다 한다.

永登浦教化區에 三百圓寄附
朝鮮勤農會社서

【永登浦】 영등포읍 조선근농주식회사 (朝鮮勤農株式會社)에서는 창립 三十주년 기념사업으로 금 三백원을 경성부 영등포교화구로 영등포교화 구 교화위원회에 기부하여 다 주기를 바라다고한다. 소다를 사용한다 하야 영등포 일대의 살림과 업종에서 알고 주의하여 주기를 바라다고 한다.

白米窃盜
犯人, 仁川署에被逮

【仁川】 인천부 송현정 김순성(金順成) 등 三九 김정상(金敬月)(三二)은 인천부내 모 미곡상에서 백미를 절취하엿다가 인천서에 체포되엇다.

大邱 勤勞層에明朗色
官廳增俸
거州일부일제승급

【大邱】 최근 물가고등에 따라 근로계급의 부담은 전일보다 조금도 나아진것이 없어 우울한 판인데 경북도에서는 일제히 관리의 승급을 실시하게되어 三十일부로 승급의 발표를 보게되엇다. 그리하야 대구부내 관리 승급인원은 약 삼천명에 달한다고 하며 승급총액은 二만원에 오르고 대구세무감독국(大邱稅務監督局)에서도 판임관 급 고원 六十명에 승급 발령이 잇고 又 八백四十원이라고 하며 대구우편국은 五十二명에 평균 二원의 승급이라하야 三十일의 대구각관청은 웃음에 찻엇다 한다.

海産江華에喜消息
發動漁船百隻建造
강화어업조합의 발전적운동
五個年計劃事業으로

【江華】 년산 四十만원을 내고잇는 강화도(江華島)의 해산물은 백 二十만원의 산액을 내고잇는 유명한 강화의 지방(地方)화가지 부문 강화 선건조에 쌍발 모터선(發動機船)을 건조 로 발동기선 (發動機船)의 건조를 五개년계획 사업으로 합(合)에서는 다시 五개년계획으로 어업조합(漁業組合)에서는 발동기선건조비로 金 二천四백원으로 조하야 강화 어업계에 일대 발전을 도모하리라고 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개선대 금년부터 소화 十二년도까지 매년 二十척식을 건조하야 강화어업계에 제공하리라는데 그 건조 자금은 조합의 이용에 제공하리라는데.

배 한척 대금을 二천四백원으로 잡아 매척에 대하야 二백四十원을 대부하고 그 나머지를 八개년간 년부상환으로 시키기로 하는데 조합 당국에서는 연기 해양 강화군 성서면에 조선 각지 二천의 서(西)에서 선조합(船造合)의 각 조합원의 분배에 각 원까지 이를 실시하리라는데 조합 당국 에서는 이로서 척히 하도 (下道)면에 二척 삼산(三山)면에 六척 서도(西島)와 삼산, 교동(喬桐)면에 각 五척 식을 배치하야 금년도부터 건조하게 하기로 되엇는데 산업강화도에 한 기록이 되리라 한다.

가관영되지안흠으로 이것의 주인을 수사하고저 경성부와 경성방송국에 의뢰하야 二十八일오후十시의 뉴쓰를 통하야 전조선에 피해자를 찾엇는데 그 결과는 아조성공하엿다 하며 조선경찰계에 첫시험이라고 한다.

(右欄) 이재원(李在元) 【桃山町】 二八 이하 외 정거장 (郵便局)의 정부에 싸와 표화의 이엿던 도산정 二六 미곡소 허둔 장미(白米)를 지난二十一일부터 十수회에 걸처 十수가마를 절취하여다 발각되어 지난二十九일 (仁川署)에 체포되엇다 한다.

入學難緩和策
入學金을引上해

【慶州】 경북영주읍에 잇는 영주공립보통학교(榮州公普校)는 금년에는 학년이 기만되면 불과 一백五十명 모집에 적어도 三백명의 지원자가 잇으므로 학교당국자는 여기대하야 여간머리를 앓지안코 그의 완화책을 강구하든바 지난二十四일 학교장과 학부형회(學父兄會)와 회의하엿다.

出沒이非常한 窃盜가行脚
淳昌邑內에被害不少

【淳昌】 순창군 순창읍내 남계리 정로(亭路里) 정(鄭)모의 집에서는 지난二(三)七일에 감쪽같이 도적을 맞고 일찍이 가고잇는 피해를 입엇는데 근자에 출입하야 여러해에 걸처 잇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엿을 비롯하야 생산물을 훔처가며 주인의 동리 여기 저기를 당하얏다 한다. 그리고 지난二(三)일 오전에 부 시가에 거주하는 신씨(申氏) 집에는 二十원을 도난당하얏다 한다.

開城朴在賢氏特志

【開城】 개풍군 영북면 백석동(白石洞) 박재현(朴在賢)씨는 금번 영북면 (嶺北面) 백석동 약 二백여호의 주민이 살고잇으나 원래 산간벽지이므로 아직까지 한문의 교육기관이 없어 군당국에서는 벌서부터 간이학교설치를 계획하엿으나 주민들의 생활상태가 너무도 피폐한 까닭에 난국에 처하여잇든 바 이소식을 들은 개성부 지정 (池町) 박재의(朴在義) (卅一) 씨는 자진하여 二천여원을 회사하엿다는바 지난 二十五일에는 드디어 표사가 락성되어 개교식을 시작하리라는데 부군주민은 물론 一반은 박씨를 찬양하여 마지 안는다고 한다.

【甲山】 갑산(甲山)... 지(甲) 숭(崇)을 곧 마주엇다고 한다. 계되엿다는바 정시간 감독을 받게 되엇다고 한다.

에서는 종래의 입학금 一원을 五원 씩으로 인상하야 전학자에게까지 응용하며 四년제 수업한 아동으로서 五학년에 편입코저하는 자에게는 二十원이상을 받고 입학을 허락하기로 토의하야 지난二十六일 오후 동교장의회의에서 결정하엿는바 연령 제한을 자기주장을 강경히 세워 가며 지 겸국 一원의 입학금을 五원 으로 인상한 것이라 한다.

어린이가실수하야 우물에빠저죽어

【海水】 마산선 덕산역(德山驛) 에 근무하는 역부 김재형(金再亨)의 딸 순이(順伊) (六)는 지난 二十八일 아츰에 집을 나가서 한나절이되여도 도라오지아니하므로 집안사람이 매소동하야 여러곳을 찾어도 종시 행방불명이므로 하다못하야 우물에 가서저 어 보앗더니 뜻밖에 죽은 시체가 되어 떠 잇엇다고 한다. 어제 빠진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여러가지로 종합하야보아서 오랜 시간이나 된듯하다 한다.

이 판명되엿다는데 이제 세소년이 그와같이 허위신고한 내용을 듯건대 지난 十七일 안성읍내 농구회사 대리점의 점원 유봉식(劉鳳植)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전기저장소의 점원으로 채용하여 달라고 하야 十八일에 안성으로 와서 그 곳에서 도중에 유모가 세소년에게 기다리라하엿으므로 세소 년은 자동차로 안성다리 부근에서 기다리라하엿으나 종시 유모의 소식이 없으므로 그제야 속은줄을 알고 부모에게 대할 면목이 없어서 그와같이 허위신고한것으로 유모의 종적은 아즉도 알길이 없다 한다.

短信

● 慶州 慶州郡棠面 洛陽里 吳趙英(二)은 自轉車를 窃取하야 慶州 署에 逮捕되어 取調를 받는다고.

● 釜山 去月廿八日 丸一町八 一番地에서 李成烈 (二)이가 東萊方面에서 疾走하여오든 乘合自動車에 치어 治療 三個月의 重傷을 받엇다. 그런데 加害運轉手는 모르는체하고 도망하엿다고.

● 淸州 지난달 廿六日 梧倉面 梧山里旅人宿 吳慶元家에서 同面 柿木里 林某(二)은 某面某 李某와 갈이 술을 마시다가 李某가 醉하는틈을 타서 公金二十

第一期戶稅를 苛酷히徵收
仁川府沒人情的處事

【仁川】 과거에는 세금이 일까지 납치못한 사람에게는 그 표본 인천부(仁川府)에서는 금 년 제一기분호별세 (戶別稅)중에 잇서 지난 十一일부터 二(十)일까지 가서는 차차사압(差押)의 절차를 밟기로 한다는 바 그납세기한이 지나자마자 도 과三일의 여유밖에 없는 二十일 압류까지 하엿는데 인천부 인천의 부민의 생활상태를 무시한 기한을 정한데다 二十二일에 걸려 사압을 당한사람이 二百여명으로 방부 속 사압까지 하기에 부과 一주일이라는 과거 특정호수방법에 부민의 불평은 날로 비등하여간다 한다.

就職詐欺當코 强盜로出告

【安城】 안성군 보개면 (寶蓋面) 신(新)적 三十五번지 유병만 (劉炳萬)(四○) 동리에 사는 山(?)… 이 안성경찰서에 출두하야 고소하기를 지난 二十八일 밤 동리 유모의 집에 들어가 도합 八원을 빼앗겨 이어 도망하엿다고 고소하엿으므로 경찰서에서는 수색하든 중 그 내막은 이러하다. 그리고 지난 二일 오전 五시 신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엿다고 수색의 여지가 업지 도 안다.

(續) 강도가 신고 지난 二十一일 오전 四시 경 동내 오거리 (五里)의 상점에 들어가 四원을 강도당하엿다고 고하엿으므로 안성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색하였으나 해당자는 뜻으로 안성경찰서에고 자기관내주민에 안성경찰서 (安城警察署)에서 이소식을 듯고 지난뒤에야 온양으로 수입이 지난 二十九일에 이르러 허위신고인것이 판명되엿다 한다.

媤母、男便虐待로 乳兒를品거죽여
어린애 안고 로루에 방황타가
産母는水原署에哀訴

【水原】 시모(媤母)와 남편의 학대로 쫓기어나 (逐出)어린자식을 품에안고 가로에 방황하다가 그대로 죽게하여 하다 소연한 젊은 여자가 잇엇다. 수원읍 신풍정 수원(水原) 新豊町 무삼태(武三泰) 씨의 처 남(南)모 (二)는 지난 봄부터 二(三)년전에 정기 무삼태와 결혼하야 지내오든중 시모(媤母)와 의외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던바 지난 二十三일밤에 남편의 집에서 쫓기어나 두고 쫓기어나 자기 친정으로 가서 잇다가 이전보다 다시 도라와 같이 살기를 애원하였으나 그집에서 역시 쫓아내매 세인방황하여 어서 거리를 헤매이며 젖(乳)을 먹이지 못하야 울부짖는 어린자식은 젖을 먹지 못하야 그만 죽고 말어버렸다. 이에 남편의 집으로 가서 죽은애를 안고 다리고 가서 이를 호소하엿으나 역시 남편의 집에서 어린애를 죽이엇다는 소리로 쫓겨나 지난 二十八일밤에 죽은어린자식을 품에안고 남편의 집에 찾어갓으나 문을닫고 여러수차이나 차자갓으나 황하다가 그대로 죽게한 남편과 시모에 대하야 원망을 하며 참다못하야 그이튿날 오전 十一시경 수원경찰서에 달려가 사실을 고소하야 인소리로 하소연을 하엿다는데 이를 접한 동서에서는 즉시 시부모와 남편을 소환하야 조사중이라고 한다.

醉積放火犯 二十八日送局

【金浦】 지난 二十一일 오전 四시경 김포군 하성면 전류리 (金浦郡 霞城面 前柳里)에서 로전에 방화로 피해자 가 수십원에 달한 사건이 잇엇다.

陝川伽倻普校 金訓導褒彰

【陝川】 경남 합천군 (陝川郡) 에서는 지난十三일부터 三일간 합천보교에서 표창식을 거행하엿는데 회중 훈장 (訓導)을 개최하엿는데 표창 최종 일인 지난二十五일에 동군 가야보교 (伽倻普校) 김훈도(金訓導)는 소화 五년 三월에 전기 학교로 전근되어 우금 근무하엿으므로 경남도지사로부터 금시계 (金時計)一개로 十년근속 표창 (表彰)을 하엿다 한다.

修理復舊하려는 智異山雙磎寺

【河東】 지리산 쌍계사 (雙磎寺)를 그누가 아직못하라마는 지나온 내려 역사와 건물, 보물, 고서등을 상세하게 말하고 또 그 절의 건축 사업에 착수하고 발행하는 동시에 작년의 재산에 입은 피해를 수리복구하고저 목하 활동중이라 한다.

仁川自動車學校 三十日正式認可

【仁川】 인천자동차학교는 六월三十일부로 정식인가되엇다. 심의된자 최영순씨를 찾으니 만면에 희색으로 「시기에 적합한 사업이므로 정식으로 인가되리라고 민어왓습니다 만은 정식통지를 받고보니 안심됩니다. 입학금 三원 월사금 五원가량으로 하여 수다모집하엿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만흔사람에게 기술을 얻게하는것이 근본정신이라오」 운운.

여서이 소실되었다 한 누보한바 어니와 그 화인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남원 (南原)한 경위의 상당후 한이 지우하야 김명희 (金明熙) 씨의 소자 인이 二(?)년 민병하 (閔丙夏)의 (三)이가 二년 전에 조사정을 에씻기 후 서로 감정이 조치못하게지내오 든 결과 그를 이치하야 업중처조한 결과 파연 방화인것이 판명되고 그가 진범인인것이 판명되엿으므로 一건서류와 함께 금 二十八일송 국되엿다고한다.

라디오를通하야 被害者를探聞
大邱署試驗

【大邱】 대구경찰서에서는 지난 六월四일 대구역내에서 부정히 들고 나가려든 화물 (貨物)을 압수하엿는데 차마가 수상히 정의한 화물의 피해자

寂滅 (30)
金武吉 作
洪得順 畵

成世 (十三)

인에는 춘식에게서 받은돈 일천원중에서 오백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박철은 보석이되여 다시 친한세상을 보게되엿다.

그러나 박철의병세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험신함의해서 아주 담가(擔架)에 떠메워나와서 그길로 바로 중앙(中央)병원에 입원한수밖에 없엇다.

간수장이 하는말을 드르면 박철의 병세는 이주이삼일 안에 갑작히 더나빠저서 병을치료하든 의사도 절망이라는 진단을부치고 손을때엇음으로 보증금이없이 그저라도 내보내려고 하든차에 가족으로부터 보석원을내서내가니 참말 시원한일이라고 햇다. 이말을 듣는 인애는 가슴이 미여지는것같이 앞엇다. 만일 그말이사실이 라면 공연히 자기의 처신만 망첫거니…하여 한탄하엿다. 온세상이 방금 캄캄해지고 사람들같은 점만들 느꼇다. 진맘사람들도 모다 아우성을쳐서 울엇다.

업부인은 가정해서 손을쓰는것을 견우보다 혹해서 진정을시켯다. 그러나 박철은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얼굴을 보는것이 자못기쁜듯이 간엽흐웃음을 입가녁으로 웃엇다. 그리고 이러케 나즈한말을 햇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오냐 우리 걱정은말어라. 네병만 나면 그만이다. 아무생각 마라…으흐흐 흑흑」

업부인은 말을 마치지못한채 울음이 터저나왓다.

「오빠 퀴려 병이 어서 나 어서 오우. 타구 흑흑. 나구 흑흑…」

병원침대에 누어잇든 박철은 이러케 된 기침을 옛번하면서 타구통에다 피를 토하기시작햇다. 그피는 죽기는 타구를 넘처 흘러서 하얀 침대에 붉을 빨가케 물들러놓앗다. 그렇게 잇든 가족들의 얼굴에도 피로 새 겁에 떨려 피하는 사람도 잇엇다. 목화를 친듯이 미칭증을 뒤부렷다.

그리고 방안에는 비린내 더 욱이나 썩은피에서만 마튼수잇는 독특한 비린내가 확하게 끼첫다. 박철의 얼굴빛은 금시에 파랗든 백지장같이 하여지고 눈자위는 흐리며 모로썻다. 그리고도 숨人길은 은 훨씬 몹시 씨근거리고 놀

「가만 계서요. 좀 진정해야지 흔들면 도리어 해롭습니다. 물러나서요…」

인애는 시어머님을 물리치고 자기손으로 박철의 머리를 받들고서 벼개를 높엿다. 그러나 박철의 정신상 기분을 느꼇다.

「오아… 저기왓다! 애 정신 차려라 ―중? 애미가 예잇다. 날보르겟니? 이거 어쩌나…」

박철의 어머님은 자식의 머리를 뒤흔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 첫다.

「어보서요 의사님. 이게어찌된 일입니까?」

엄든종 바주서요 진정제주사도노코 보험주사도 노코 정신차리게 아질주사도 놔주서요……」

인애는 눈물섞인말로 허덕지덕 하면서 의사의 진단을 재직할때 뭇엇다. 박철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듣고잇는 의사도 마음이 바빠서 어마에 식은땀을 흘렷다.

그의가슴은 갑비스대의 수효를 헤일수잇도록만큼 알분 인데 소수라지고 비달어진 열은가죽이 숨人결을따라 발딱발딱 떨리엇다.

「사는답니 설마 저놈이 되엿음을 부러보겟소. 아주 생사람을 잡아우러…흑흑…」

「글세 벌벌하는애가 죽어나잇오니…에이 내가 몬저 죽어야지 청렴가슴앗아 못견디겟수…엉엉…」

김여사와 업부인은 이러케 예통하고 통탄하며 눈물을흘렷다.

「참 의사님 ― 조흔방법이 잇군요…」

이때에 인애는 분연히 나서면서 자기와팔을 거더붙첫다.

「네 무슨방법입니까?」

「저 ― 병자에게 저의피를 좀 빠서 옮겨너어 주서요. 수혈(輸血)이 퍽 조타든데요.」

인애는 자기의 하얀팔뚝속으로 닷는 靑은피人줄을 가라치면서 이러케외첫다. 의사도 감격한태도로 말햇다.

「네 팔론 조흡니다 야 이백구 람까지 뽑는대도 빼로운 고장 은없음니다. 그러케 보십시다」

조금뒤에 의사는 一백구람이드는 주사기를 가지고와서 그리고 인애의 혈관에다가 바늘을 꽂은뒤 에 피를 뽑기 시작햇다. 한구람 두구람…… 일백구람 백구람…… 이러케 피를뽑아내는 분량이 늘어감을따라 인애의얼굴은 노랏해지고 머리가 휘하고 현기가 나는것 같이 불유쾌하여젓다.

이 이제 보호자의 뒤를 따라 업부인과 김여사의 눈물에 가득한 얼굴을 보고 의사가 서면 안된다고 주의하엿다. 조흔 방법이 발각되엇다 공

의 눈자위는 희미하게 인애를 볼곳이 업시 아모말도 업고 얼굴로 내놋는 처참한 광경을 참수가업서 부르르 떠는 조홍된 흐느낌이 들리어 운 소리로 이는 동안에 벌서 그 말하는데로 의사의 자부질까지 떠나엿다.

오게ー大演奏會

◇時日 七月三、四兩日間
◇場所 晉州劇場
◇料金 大人一圓、小人八十錢 但本報讀者에限하야一圓을八十錢、八十錢을六十錢으로함
主催 江南樂器店
後援 東亞日報晉州支局

南朝鮮視察團員募集
◇時日 七月十日午後十一時半出發 七月十五日午前五時半歸着
◇視察地 大邱、慶州、佛國寺、釜山、馬山、晉州、海雲臺、東萊溫泉
◇團員 三十人以上、會費一人當十七圓
◇申請期日 七月十日午前까지
◇申請場所 烏山驛前 東亞日報烏山支局
◇主催 東亞日報烏山支局
◇後援 烏山和信連鎖店、烏山驛前 烏山濟生堂藥房

第九回 纖南個人庭球大會
◇日時 七月四日午前九時
◇場所 安法普通學校
◇參加金 一組八十錢
◇申請期 七月三日까지
◇賞品 優勝旗外副賞
主催 安城庭球俱樂部
後援 東亞、朝鮮、每申支局 安城體育協會

ClibPDF - www.fastio.com

北部版

地方論壇

溫泉施設과 衛生에 留意하라

溫泉은 天惠의 一이오 또한 [illegible] 地方의 利益을 위하야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그 施設이 不備한것이 큰 遺憾이다.

沐浴에 마루에는 垢汗가 가득하고 衣服에 不潔하야 못쓸 [illegible] 키고 말게된다. 溫泉는 下水口가 [illegible] 年前에 [illegible] 不潔하야 入浴者가 [illegible] 하다.

聰이여! 今年度溫泉施設費 二千三百五十圓五十五錢이 오로지 昨年에 比하야 五百餘圓이나 增加되지 아니하엿는가? 그러나 溫泉施設改善에는 何等計劃이 없는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昨年에도 二百圓假量으로 公衆浴場을 新設한다든것이 겨우 [illegible] 고처놋엇으니 [illegible] 責任當局이여! 溫泉의 [illegible] 하야 不潔의 [illegible] 地方發展의 促成을 期하는 同時에 또한 市民保健衛生上 一層注意를 [illegible] 바란다.

軍事探偵事件의 李延鉉에 六年言渡

【咸興】 군수공업 지대(軍需工業地帶) 흥남(興南)을 중심으로 정세운동의 지하공작을 꾀하는 一방 소베트 정보와 연락을 취하야 군사탐정을 하엿다는 혐의로 함남경찰부에 검거되엇던 이연현(李延鉉)(三)와 이한빈(李漢彬)의 양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군기보호법위반사건의 언도공판은 지난 六월 함흥지방법원에서 국지재판장으로부터 각각 六년 징역을 언도하엿는데 이는 지난 [illegible] 검사의 구형보다 각각 一년식 감하게 언도한것으로 피고 양명은 지난 [illegible]일 이 판결에 불복공소하엿다

浸水期도 切迫한데 住民收容地未定

長津貯水池와 貧農의 身勢

【長津】 장진강수전회사의 저수지로 새로 장진군 삼남면(森南面) 上南面을 비롯하야 서한면(西閑面) 중남면(中南面) 신남면(新南面) 등 四개면내에 四千數百町의 토지가 물속에 잠기어버리게되엇으므로 관계지주들은 수몰되는 토지와 가옥을 회사에 팔고 [illegible] 하여야 할 [illegible] 회사에서는 [illegible] 이미 보상이 끗나고 [illegible] 민을 수용할 토지는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야 [illegible] 도당국에서는 [illegible] 저수지역 내외 요이주호수를 조사하야 겨우 [illegible] 토착주민의 가슴만 [illegible] 회사당국자와 최후적타협을 하고 그 이주비와 업을 [illegible] 고려하도록 하엿으나 도당국의 안이 거부하고 자기회사의 조사보고를 부담하는 [illegible] 것이 [illegible]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정가시고 [illegible] 수년간 살어오는 [illegible] 것이니 [illegible] 갈곳없어 가슴을 조리고잇는 토착수민의 안타가운사정이야 해이리저자 할것이나다.

【長津】 장진강수전회사 長津江水電會社 저수지 용지 七十여만평에 대한 매수교섭이 순조로 진행되지 못하야 결국 회사에서는 토지수용령을 신청하엿다는바 [illegible] 十二일 함남도 지사의 재결 신청을 보게될 예정이엇든바 도의 사정으로 연하야 오는 十五일부터 연기하게되엇다고 한다.

長津 水電貯水用地로 七十萬坪裁決(土地收用令)!

線路에서 牧童이 轢死

【興上】 [illegible] 에서 사다가 [illegible]

저수지의 종래의 토지를 희생하야 가옥전답을 상실하고 온두가도 못하고 사람이 二萬五千여호의 一천五百여명에 달한다는데 함남도 당국에서는 이에대하야 수전회사에서 그들의 이주비를 부담하야 이주후보지를 물색하여서 하로바삐 이주하도록 수차장진군을 통하야 또는 함남도지사의 직접 타합을 거듭하엿으나 아즉까지 토지수용령 문제에 관한 [illegible] 될고며 할것이다. 아즉도 되지 안하서 종래에 잠겨버릴 급박한 정세에 이르고 있다.

五十여만평에 대하야 토지수용령 신청(土地收用令申請)을 재결신청하고 희사는 수로를 처리케한후 서로 다협이 성립되지 못하야 오는 五十九명의 소유인 [illegible]

[illegible] 한사건 지난二十九일오후 三시 四十분경에 흥상 興上 역을 떠나 함흥방면으로 향하는 혼합열차 제五二一호가 홍상역에서 약 四키로나 되는 지점에 이르럿을때 [illegible] 에 차길을베고 단잠을 자는 목동이 목사되엇다한다 이제 그 내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는 [illegible]

—半月島의 風景—本社—

安邊鶴巢簡易校에 六千圓喜捨

大嶺鑛主金仁奎氏가

【新高山】 함남 안변군 위익면 죽근리(安邊郡衛益面 竹根里) 대평광산 大嶺鑛山 광주 김인규(金仁奎)씨는 풍광산대 분광업자(分鑛業者)들의 七千여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전부를 포기함이 잇어 이미 본보에 보도하바이어니와 씨는 평소부터 구제사업과 사회사업에 적지 않은 희사를 한 바 외경영 郭山 을 받어오는중 [illegible] 에도 안변군 安邊郡 [illegible] 의 개숙 [illegible] 또는 증축 [illegible] 비로 다대한 [illegible] 해를 희사하엿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면내 학소가이 簡易學校 교실이 불완전하야 아동교육상 지장이만흠을 정시하는 바 동교개축비로 현금六千원이라는 거액을 자진하야 사회사업비 一만三천여원에 달하야 一반은 그사회봉사심에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그리하야 동교구에서는 최근 조중연(趙重衍)(정발 鄭發) 제씨는 장진연 張珍淵 제씨 외 수양 월해 오로 활동을하야 현재 一반여원의 저립을보게되어 오는 七월중으로 동교신축을 시작하게된다는바 반은 보통교 승격을 목표로 다 시계속 활동중인데 그결과는 자못 주목된다고 한다.

馬場"金組"貸出停止로 組合員大打擊

이미貸出決定한것도안주워

【永興】 영흥군마장(馬場) 금융조합(金組)에서는 十八日 돌연히 일반대출을 정지하엿다는데 어떠한 이유에 다수조합원에게 대한 경이라는바 엇지한내용인지 일에 대출키로결정하야 대금의 지불을 또는 답보감정까지 한것도 대출치 안케 되엇다한다.

금후 여것이 얼마동안이나 계속될지 지금 예측키 곤란하고 농번기 에 어려움을 당하는 조합원들은 그 대출금에 의뢰하여오든바 금후 [illegible] 정리과정에 잇는 고리채도 어찌하다시 정리하게 되는것만큼 그치이는자 못 수입이 되리라고한다.

장래도 대출정지에 대하야 통로 인 [illegible] 대출금지 [illegible] 탕칼라하니 다수조합원의 [illegible] 입니다 [illegible]

五十萬坪埋築地에 「日滿막네숌」工場建設

着着工業化하는鎭南浦

【鎭南浦】 一백만원 예산으로 진남포 마산리(鎭南浦馬山里)살 림전(三和町) 간사지 干潟地 四十一만여평 매립하여 공장지대를 제공하기 위한 동 부사(府)보도하엿거니와 어제(제(?)우선 일반(日滿)「막네숌」 공장지대로 제공할 十여만평을 연기 [illegible] 의 임시노회의 결의에 의하야 연구 [illegible] 결정되어 즉시 매립공사에 착수케 되리라 한다.

평은 총매립비 二백만원예산으로 三기로 나누어 전기의일 日滿막네숌 공장지대로 十여만평 七十만원 예산으로 제一기사업으로 착수한다고 한다.

◇……대진남포건설(大鎭南浦建設)에 一대지장이라고 불리든 전력(電力)문제도 이제는 완전해소될 가망이 충분하게 되어 [막네슘]공사의 진남포 鎭南浦 [illegible] 공장을 가지게 된다.

평남 당국 [illegible] 진남포서부방면 간사지매립十數만평을 발표하엿는데 그방면 간사지는 면적 약 五六十만평으로 압으로 이 방면에서 [illegible] 지점에 [illegible] 따라서 [illegible] 다는 전기산사지를 매립해공하기로 준비가되어 잇다 그러데 금후진 남포의 공업지발전을 전망 展望 하면 [illegible]

하건데 총매립면적과 거대한 추 가 산출되는 지방이 全部 鎭南浦 의 [illegible] 하게 된다 [illegible] 로 활동하 든 대립 大立 이 다 가장 유망하다고 [illegible] 공장이 가진다는 정도 [illegible]

北朝鮮蹴球大會

【興南】 흥남 체육회(興南體育會)의 주최로 [illegible]

會 의 첫사업으로 동회 주최하에 지난 二十七일 제一회 북조선축구대회를 개최하엿다함은 이미 보도 한바어니와 당일 우천관계로 연기 되어 오는 [illegible] 일에 [illegible]

三千職工收容할 人絹工場進出確定

咸興서 工場基地買收交涉

【咸興】 함흥부에서는 장진강수전 長津江水電 의건설로 조선질소 朝鮮窒素 공장의 신설 확장등 외부적 모든 조건으로 점차 발전하여가고 잇는 관북의 중도 함흥 咸興 은 지난 四월 一일부터 인접한 三개면을 새로편입하야 행정구역의 확장을 단행하는동시 시가지계획사업의 착수로 압날의 함흥은 자못 활약할 발전을 하게되리라고 一반부민은 크다란 관심을 가지고잇거니와 최근에 이르러서는 함흥부의 공장유치공작도 어느정도까지 효과를 보아 일본내 대기업자들이 모든조건의 지의 가업자들이 모든조건의 유리함을 조사하여가지고 식 지(敷地)를 옥주기게 되엿다 고 한다.

그중에서도 약 卄만평의 광대한 부지를 차지하리라고 하는 대일본방적회사의 인조견공장(人絹工場) 직공 約三千名 을 수용할것으로 보인다.

이진출하게되어 부남부 또는 함흥근교 일부지대로 마당할 시가 성립된 모양으로 공장지대로 선정이거장 할 현에 되리라고본다.

그런데 함흥은 여러가지공업에 적절한지대로 제一공업용수 工業用水 의 양질풍부한것과 공장용지의 저렴한것 전력(電力) 또는 석탄이 풍부한것 교통운수가 편리한 점등 여러가지조건으로 기업자들이 비위를 건드리게하는 바로 앞으로 각종공업 그중에도 섬유 纖維 공업이 진출할것으로 보인다.

物價高를考慮 職員에게一齊昇給

平南道、平壤府、遞信分掌局에서

【平壤】 물가고 物價高 시대에 생활난에 허덕이는 샐러리맨들은 승급을 기다리고 잇스며 평남 도청(道廳)에서는 [illegible] 의 승급은 다음과같이 결정을 보앗다.

◇……평남도에서는 지난 二十九일 판임관 관리 三十九명 고원 七十二명 고원 二백十一명 [illegible] 에 대하야 승급 사령을 수여하엿고
◇……평양부에서도 지난三十일 판임관 [illegible] 四十三명에게 대하야 一원의 승급사령을 발표하엿다.
◇……평양체신분장국(平壤遞信分掌局)에서도 지난 三十일 판임 관一백七十명 월급고원 八十一명 계 [illegible] 한급은 一원으로부터 七원까지 [illegible]

의 직원중 승급기에잇는 판임관 十六명 판임대우 四十二명 고원 五원 고원 리원에게 一원의 승급사령을 발령하엿다. 이로써 미 [illegible] 三원까지의 승급이 잇엇다.

天倫일흔子息 實母를亂打致死

【新義州】 자기의 어머니를 곤봉으로 난타하야 즉사케한 천륜을 어긴자식이 잇다.

청산군부서면어산동(鐵山郡扶西面於山洞)에서 농부로잇는 정원중(鄭元仲)(三十)은 지난 二十九일오후一시경 자기의 실모인 이 [illegible]씨(李氏)가 길오른 개를 잡아서 엇은돈 二원을 자기에게 주지안는다고 격분한끝에 곤봉으로 난타하야 두개골이 파렬되어 즉사케하엿는데 소관철산서에서는 즉시 인치취조중이다.

南浦碑石里 酌婦風紀紊亂 住民은嚴取締要望

【鎭南浦】 진남포 비석리(碑石里)五十五번지일대는 약二十여처의 주류판매영업집들이 나열하여 저녁四、五시경만되면 요부분면의 작부들이 가로상으로나와서 오고가는 사람들의 모자넥타이 기타 옷깃을 붓잡고 一우리집이 음식을 잘하니 한잔만잡수세요 이것이 진정 우리들이 선생님에게 원하는 부탁입니다. 이러케 수단을 써서 돈이 잇고 없는것을 불문하고 유인하여 드러간 처고 생각없는 술을 마음대로 먹인후 나중엔 청구의 돈이 없는지 족한 부족하든지하면 그야말로 층층으로 가진위협을 다하여 술을 판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오후一시까지인데도 불고하고 二、三시까지 혹은 밤새도록 떠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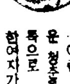
旱水害防止策으로 安信水利稷組織

【載寧】 황해도 신천군 노월면 魯月面 파룡수면 [illegible] 일대 수전(畓) 一천四백정보에 관계농민수삼천명은 지난수십년동안 한수해(旱水害)로인하야 불안과공포중에서 생활을찾어 나부 녀대(婦女)출이하고정처없이유리한다함은 누구나 부한바갖거니와 이에 안악신천재령 安岳信川載寧 三군에 지수들은 한수해대책(旱水害對策)으로 안신수리조합 安信水利組合 을 창립 창설할 계획수 장하고 당국에 실현을 요구하엿으나 실현치못하고 결국 관계지수들 불망리 한신안 수리계(安信水利契)를조직하고총 공사비 十七만五천여원으로 마명산(馬鳴山)입수구를비롯하야의둔무삭 적구보(積口洑)(賓玉)의 赤口洑 三개처에 저수지 貯水池 를 설치하야 한수해를방지할목적으로 지난달부터 공사에 착수하엿다는데 지주농민들은 하루바삐 수리조합이 설치되기를 갈망한다고한다.

兼二浦幼稚園 五千餘圓으로建築

【兼二浦】 기보 十여년의 유구

二八歲少婦 厭世自殺



【江界】 二十이란 꽃다운 청춘을 읍 륙으로 청산 한여자가잇으니이제 그실 정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본적 을 황해도옹진군 표정면에 김보금(金寶金)(二)은 그가十八세때 화류계에나가 각지로 전전하다가 작년 五월경에 어떤남자 와 서로 알게되어 백년가약을 맺 고 생활에 안정지대를 찾어 옹진 군기린도 麒麟島 에 들어가 대리 석(代理石)공사장에서 품을팔어그 날그날을 살어왓는데 생활에 궁 핍함과 신변에 부자유함을 항상 비관하여오다가 지난달부터는 그곳에 [가시리]를 사러온

滿洲産業視察團 一行의美擧

【咸興】 전번에 조선일보주최로 만주산업시찰단 일행은각지를 시찰하다가 함이빌 咸興[illegible] 도착하는 동 시내안동가(安東街)에 잇는 조선기독교회내 조선유치원 (朝鮮幼稚園)에 백九원을 기증하 엿고 또 특히 경성의 공진회사 (公進商會)사장김의하一뭇 (三)(?)는 패중 [illegible]시계한개를기 증하엿는바 일반은 이에에서매우 기버한다고한다

襄陽蠶業會主催 農民慰安運動會

【襄陽】 양양면에서는 작년의 큰재변을 겪고나서 아즉도 회복하기 짝이없는 일반농민들에게 단 몇일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하야 지난二십四일부터 一십九일까지 연새동안을 남대천 광장에서 농민위안운동대회를개최하엿는데 각리 농아대(農兒隊)가 총동원되여 반년연이 인산인해를 일우엇음은 더러 특히 재년에없든 전룡가설로 부야상을 일우엇으며 미인투표에는 흥미진진하야 대성황리에 종회를 고하였는데 수상자씨명과 농악대우승팀은 다음과 갓다.

[illegible] ▲協力 一等○○○ 二等○○○ 三等○○○ ▲ [illegible] 一等○○○ 二等○○○ 三等○○○ ▲美人 [illegible] 一等 [illegible] 二等 [illegible] 三等 [illegible]

各地의慈雨消息

天水畓엔아직도未洽

鎭南浦

기보 지난二十八일오후三시부터 진남포지방에는 금일까지 二十九일 계속 비가내리는 중인데 강우량은 二十九일 오전八시까지 의 제一수천지 二十一리 제二 수천지三十二리 진남포에는二十七미리 에 달하는 경우 전곡의 해갈이 나된모양

으로 아직도 三十五미리 이상은 더오야 이앙이 겨우되리라고한다.

候南

장기의 한발로인하야 장년간대외 농민들의 마음을 볶아게하든비는 우 나 일전단사는민 비 一비하고 부유적은 해해외 희우가 지난 二十六일저녁부터 나리기 시작하여

博川

오래동안 기다리다 못하여 기우제까지 거행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든 一二十七日까지 나리던 비는 금년여름 이래이전 나리는비로도 가진 곡물의 해갈을 넉넉하다하야 일반 농가에서는 기쁨이 만만하다 고한다.

兼二浦

오후三시경부터 나리는 금년여 름으로는 처음되는 큰비로 아직 모심기를 마치지 못하엿든 천수답 (天水畓)、四十여정보도 일제히 모를 옮기게되엇다한다 비는 흡족 하게되어 금후에 천후가 순조로 가면 농사는 풍년이 되리라 한다

【兼二浦】

기보 [illegible] 희 지난 二十六일에 이날 부터 가물든 답에 수천해 [illegible] 모두 [illegible] 모르게 [illegible] 전 우려되든바 이었는데는 장기모사 (秋期模寫)와 저리(低利) 동에 전 염병이 만연하야 일반사민들은 불 안한상태이며 환자가속 발생됨에 따라 당지경찰서 소에서는 소 독과기타 예방에 진력중 이더

라。

黃陽內 傳染病猖獗

【黃陽】 오랫동안 한발이 심하여 우려하든바 이었는데

大同江新鐵橋 今秋에着工

實地測量도完了

【三平壤】 오래동안 숙제로 되어잇든 대동(大同) 대동대교(大同大橋)의 가설이 (鐵橋)가설은 그 설계에 대하야 평양게량사무소(平壤改良事務所)의 손으로 착착 진행되어 실지 측량도 이미 완료되엇으므로 늦어도 금추에는 착공할 예정이라한다.

그런데 동교의 길이는 二백四十미터로 도내 제三위에속할 대교로 예정이라 한다.

있는 [illegible]로 실지측량도 이미 완료되엇으므로 늦어도 금추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평양】 중남관의 대개를 소개하면 구조는 철골(鐵骨)콩그리一트로 지하실 地下室 을 포함하야 四층 총평수 九百여평 정원 一천五백여의 대건물로 총공사비 二十만원을 요하며 영사기(映寫機)는 RCA발성기(發聲機)중에도 최고급품(最高級品)으로 조선에는 처음잇지 되는 것이라한다. 오는 가을까지 기어코 완성케하도록 주야겸행으로 공사를 진행시키고잇는중인데 이극장이 준공되는날에는 진남포 시가에 一대우관이될것은 물론이 오 영화팬들을 위하야 크흥분이 될것이라고 일반은 크게 기대하고잇다.

南浦의映畵殿堂 衆樂館落成

總工費二十萬圓

【鎭南浦】 진포선생들로부터 비겨보아도 제일협소하는다는 감정이 되엇든 진남포극장으로 부터 지금까지 불편 [illegible] 이되여 흥행 가장 진남포부리(鎭南浦府里)에 부지 평 [illegible] 三백여평 진남포 진남포부리 [illegible]

大橋梁建設

嶺美、碧潼間에

【新義州】 평북 당국은 중단한 영미(嶺美)로 부터 벽동(碧潼)에 이르는 간선동 최대의 난관인 태천군 泰川郡 의 강서면(江西面)과 강동면(江東面)의 사이를 흐르고잇는 대령강(大寧江)도선장을 금년도에 가교하기로 결정되엇다.

이도선장은 우기가되면 홍수범람으로 교통은 [illegible] 이되고 보통때는 하수가 감수되어 도선불능으로 여간한 두통거리가 아니엇든바 금번 가교케되면 이러한 불편이 일소될뿐만 아니라 종부종단선 中部 縱斷線 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다하게될 것이다.

蘇江津改築問題 住民死活問題

【豐基】 황해도 옹진군 [illegible] 江津 은 옹진의 유일의 부항(不凍港)이다. 항만의 수심이 四十척이되어 선박의 출입이 빈번하엿는데 四、五년 후부터 사가 퇴적되어 수심이 겨우 十척에 지나지 못하므로 선박의 왕래가 두절되게되어 지원민의 사활문제에 이르게되엇다한다 기보한바도 잇거니와 이문제에대하야 각계의 유지들이 총망라하야 기성회를 조직하고 다대수망에 싸여잇든 소원은 밖은 업중조사중이나 뜻 하는 바에의하면 전기 양력점에서 강항 개축문제를 일임하기 위하야 위원장 반성후 반 (?) 을 대표로 도에 진정키로되엇다하야 일반은 기대는 자못 크다한다.

注文津火災 損害額三千餘圓

原因은담배불의失火

【注文津】 지난 二十七일 오전 三시경 강원도 주문진 注文津 김창순(金昌順)외 집에잇는 미나도 양복점(美奈都洋服店)에서 불이 이러나 순식간에 두채를 비롯하야 그 안에 전기 양복점을 비롯하야 그 안에 여러채의 집에 연소되어 二호三동 의 집과 영업소가 마츰 소방대의 활동으로 즉시 진화되엇다는데 그 손해는 약 三천원가량이고 피해를 당한 가족에 주기위하야 일반의 동정이 불원간 [illegible] 한다.

慈城에는 邑內는飲料水枯渴

【慈城】 평북자성(慈城)지방은 계속되는 한발로 이상하야 아직까지 조선식이 [illegible] 고 일반 농작물이 심하여 이 지방에서는 [illegible] 마실물이 [illegible] 전기 양력점에서 [illegible] 부수위한 까닭이라 한다.

水稱蹴球大會

【水稱】 수표축구대회[水稱蹴球大會]는 [illegible] 본보수표지국(本報水稱支局) 주최로 지난 二十一、二十二일에 수표시장에서 [illegible] 개최하리라는데 일반 대성황을 바란다.

鹿頭、達川間橋梁 位置變更架設

總經費二萬五千圓

【長淵】 장연(?)—달아은서흥、강현 도천사이의 도로교는 작년도 수파에 탁류의 도로는 유실되엇는데 금번에는 다시 그자리에다가 가설하지아니하고 내하지 (內河) 리등에서 하도리(下道)리에 이르는 부분에 오는 금선(?)(路線) 전환 잡변경하야 내하지에서 하도리까지 즉선이 되도록 철로제방사용 시키고 바다가로 길을 돌리는데 그 이유는 본선로보다 하면 동지산에 철도선로를 넘는 후 미지리 가질 으로 이것을 피하기 위하야 함 도국에서는 감원도 토목과와 협의한결과 변경키로 되어 공사비 二만五천원은 토목국 수사와 합하여 가설할 계획이라 한다. 리기리가 二백三十여미터라 하며 주민들에게는 [illegible] 토목과에서는 다만、본 외의 토목공사에서 부담하여하고 철도국에서는 다 만、본 철치도、북구가설 위한 약 十만원 천원에 다가 합하여 벌서 현장 공사에 착수하고 오는 七월 一일부터 착공 한다 하여 금년十二월까지에는 준공이라한다.

第一回黃海少年青年蹴球大會

△時日 七月十一、二兩日
△場所 水稱普校運動場

遊佁脚戲大會

◇日時 七月三、四、五三日間
◇場所 京義線德美交叉驛前
◇主催 東亞日報徳美支局
◇後援 東亞日報徳美支局

【海州】 해주 읍내 마소리 (?) 목공 木工 장인 김모와 일가되어 남모르게 정을통하여왓는데 지난 二十五일에는 그집에 들어가서 젊은 아내가 [illegible] 전기 김모와 종일 술을마시고 죽엇다는데 그 원인은 세상을 비관한것이라한다. (사진은 김보금)

消息

◎東亞日報社 (咸興支局) 江原道 (?) 全北

【開城】 [illegible] 四名부터 [illegible] 十日 전 [illegible] 二十 [illegible]

梁口 [illegible] 에서는 이런 [illegible] 七月 [illegible] 한다고 한다.

江西 지난 廿八日에 江西面 [illegible] 大同郡 [illegible] 大院 [illegible] 中인바 [illegible]

北靑 지난 二十五일 오전十一시에 北靑 [illegible] 北靑會館에서 北靑 [illegible] 二回 定期 [illegible] 하엿다한다。

學藝

「知性의自由」와 휴매니즘의精神

—眞實로그의名譽를위하야—

(四) 安含光

그럼에도不拘하고 十六世紀末 佛蘭西에있어서 展開된 카톨릭敎徒와의 宗敎的 市民戰爭은 그當時 文化에 對한 漫畫的인 自白을가운데 自由하든 人文主義者들의 空想을 徹頭徹尾 打破해버리지는 안엇든가?!

萬一 멀리는 文化의 [illegible] 르네산스期, 그리고 近代初期의 都會로 出現되고 그意味함터인 프로레스도 그反面에있어서는 政治的鬪爭이 가장 劇的으로 激化되엿든 時代이고 또 心臟이가 아니엇든가?!

이와같이 旣成社會의 胎內에서부터 新興의意味에서는文化的임수 잇든 新興의 解放運動에도 이러듯 피비린내나는 實踐的鬪爭과의 結帝國圖에있어서만 그文化본來의役割과 使命을 다할수잇엇거늘 하물며 現今과같은 社會的轉換, 다시말하면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何等 의 基礎도갓고 잇지못한 階級의 解放 [illegible] 하는 文化의 孤高主義的인 [illegible] 態度가 그本來의 使命을다할수잇겟다고 생각할수가 잇겟는가?

우리는 勿論 文化鬪爭을 政治鬪爭이나 經濟鬪爭가운데 解消하라는것을 意味하지는 안는다. 반대 [illegible]

化의意義를 徹底히 取扱할것이라?

더욱이 現今과같은 帝國主義時期에있어서 파시즘文化(最後의말)에對하야 敎育의 抗爭하는 文化鬪爭과의 實踐的意義의 偉大함을 否認할수는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文化鬪爭 그自體의 實踐的意義를否定함에 決코 否할바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決코 氏의見解와같이 政治를 敬遠한다거나, 現實의 基本的 흐름테밖에 超然的으로 獨善함에依하야 可能한다고는생각하지는안는다.

氏가말하는바 팟시즘文化를 媒介 批判하야 大衆으로 하여금 속지안토록 敎育하는 任務갓든은 이를 厲顧히 說明하자면 파시스트의 文化反動政策과의 鬪爭을 말할것이며, 이 文化政策과의 鬪爭이라고 하는것은 文化鬪爭의 分野에있어 봄齊아, 어데오로기와의 鬪爭과 서로呼應하는

重要 한事實이에는 틀림이 없으나, 吾人이 여기에서 氏와 더부러 다시한번 생각해보지안허서는 아니되겟다고 밋는것은, 그파시스트의 反動的인 文化政策이라고 하는것은 決코 그自身만의 힘으로서 顯現되는 社會的事實이아니라, 보다 基本的인힘, 즉 [illegible]

시금의 政治的힘, 香日 具體的으로는파시즘의 政治的힘을 그背後에가진 한개의使命의具體事實을 否認할수없는것이 事實인 事實이라하면 그에對抗하는 武器로서의文化鬪爭을 어찌 한갓의 文化主義的性格과 混同할수가 잇겟는냐(?)함이다.

現代 一部知識人들로하여금 政治的意味에있어 失地를 招致케한 逃避的存在에 對하야 全身的

情熱 파괴의 喪失, 하나의 敗北者的知帶으에서, 하잇날아즘 어떤 意味에서이고 過去를 回想키는하나 그러타고해서 現實의 眞實한모양을 認識할수도 未來를 洞察할수도 없다는 抽象의良心과 또 하나의 道德的感傷에서로집힌 하잘것업는身勢가 淺薄感傷的으로 一時 그것을 依托한 文化主義的世界에서 判斷放棄하는 無數의 電波 「否定의精神」「人間探究」「失地奪還」…等의 退嬰的인 結論, 現實的實踐的從來에서 엽마나한 程度의 漠然的力量를 가젓슬것이며또 結果에있어서는 무엇을 意味함일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라!

氏는 「파시즘文化에 속지 안토록」批判云云의 뜻을이야기하고 잇지만은 파시즘文化의 最後의 鑑賞는 그에對한批判의自由까지를 剝奪할것은 明若觀火한事實이며 그만치 어느時代 어느社會에 잇서서 나를 莫論하고 反動的文化政策에 對한批判이 基本的인 抵抗의힘과 無緣된獨善的인 地點에서 遂行되어젓다는例를 우리는 일수이보지못하엿것다

그러면 氏는 或 이곳에서 손을 어與經를 말하리라!

現存 文化의 擁護를 말하고잇을 따름이며, 事實에있어 오늘이란時代의 實情은 知識階級으로 하여금 그러한 一步退却된 消極的態度에서만 自衛의 主觀的面目을 保全해수는時代이라고

하나 朝鮮에있어 多少라도 民主主義的 色彩를가지고있는 小부르文化의 善良한 一面을意味함터인 現存文化의 擁護인것이 果然 새로운 積極的文化의 成長을企圖하는 政治的힘과 向背하고 그럼 敬遠하야하는 態度로서 遂行되어질 수있을가?!

萬一그러면 氏의 이러한態度는 單純히 實踐의側面만을 意味하고잇는것이 아니라 知識人에게 있어서는 그의 存在的인

生命 인 知的鬪爭의 撤退 까지를 意味하는것이 아닐수없다.

왜.(?)나하면 氏의이른바 리베라리즘의內容이 意味하는바 方向이라고하는것은 한낫의 非鬪爭的인 性格에依하야 設定되어잇는것이기때문이다.

過去의 그를 知識人들은 그래도 不斷히 自己生活의 指導原理를 眞摯한 態度로서 探索해왓다. 어떤때는 獲得하고 어떤때는 喪失하면서도 꾸준히 [illegible] 이외같은 行步를 繼續해오지안햇든가?!

하나 갈사록 展開의 暗黑은 그濃度를 加하고, 開歇的으로 이(起)든 雨雷는, 그와같을 照明하는 代身에

恐怖 心만을 刺戟할때 指導原理는 求하야얻어질상싶지도 안흔지라 한개의 觀照的諦觀을갖고 知的鬪爭에서의 後退를시작햇다. 이後退가 潔身的廢所가 다름아닌 리베라리스트의 文化主義的 古巢이라는것을 그누가 否認하랴?!

知的鬪爭 다시말하면 「知性의自由」를 살리어나간다는것도 그根本的性格은 「前進」한다는데 잇을것이어늘, 現實을 洞察할수없다는 未來를 洞察할수없다 前進을 止揚할수도 없는 곳에 엇지 휴매니즘의 前進이 잇을수잇으랴!

氏의 이른바 知識人의 失地란 다름아닌 知性의自由가 剝奪된 狀態를 意味하고 잇을것이 論理의 偶然한 歸結이라한것이대 知性의 自由를 抑壓하는

元素 的 抵抗하는 思想의 口吻이 되는 [illegible] 實踐的作力을 가질것인가! [illegible] 知性의自由, 氏의 口吻에 따르자면 [illegible] 휴매니즘의 精神이란 決코 [illegible] 한 激情的인 表情에 依하야 誘引되어지는 허수아비도 아니며 그러다고 卑俗한 自由性과 恣意의 一元論에 對한安全等의 收容所도 아닐게다. 그는 [illegible] 味에있어서의 知性의 自由와 同一한 方向에 設定되어지는바 하나의 進就的 思想에 不外하다. [illegible] 近代에서 止揚해두기로 하거니와 此論은 앞으로 展開시킬 筆者의 休매니즘에 있어 한 개의 序說的內容을 가졌게 不過하다는것을 말해 둔다.

藥書評論

病과藥

李一

病과藥, 사람은 病안나지못하게 생긴것이다. 一平生을 지내도록健康人도 없지는 아니하려니와 大槪는 病을 알아본다. 그러면 病에들리면 病者 自身과 周圍의 사람들은 依例히 하고저하는 行事가 거진 다 無意味한것은 藥에다 우리人間의 病나면 藥먹는것처럼 한것이 만치만 그中에 對하야 最善의 治療을 다하고도 不足의客이된 事는 다시없다. 病에 一書를 생각할 藥事이 遺憾한것을 느끼엿다.

[illegible]

漢詩

二等

麥浪

北靑郡居山面山里　李柱眞

含靑流翠樣西東　漸漸晴光一樣同
風揚賦巢翩千頃　露浥香芒燦半空
涉不褒裳來饁婦　聽無依杖笑田翁
松濤柳浪皆虛景　何似登秋飽□紅

鏡婦 (이들의表情 其二)

흔치안흐면비싸다

흔치안흐면 비싸다 [illegible] 이 비싼것은 經濟學上의 한原則이다. [illegible] 흔치안흔때에는 값이 비싸지나 사는사람이 흔치안흔때에도 비싸진다. 이것은 當然한일이다. [illegible]

[illegible]

(行餘人)

科學

新聞寫眞이야기

(二) 新聞寫眞이란 어떤것인가

姜大寔

우리의興味를 끌어오든 한예(例)를 引用하면 바로再昨年겨울 一般讀者의興味의 焦點이되엿든 「現世로빈손夫妻」 島에 漂流된 [illegible] 記事가每日社會面에 揭載될때마다 讀者가보고 싶어하는것은 그夫妻가 [illegible] 生活을하야 [illegible] 寫眞을 보앗슬뿐이다. [illegible]

例를들면 宇宙自然界의異變 卽天體觀測에 太陽의黑點이 얼마나 넓어젓다는것이나 또는地球의 어느 大火山脈이터저 桑田이碧海될이루엇다든지 또人類歷史에 남겨둘만한 政治的變動 或은古今의 名士諸氏의寫眞等 整理保管하여 두엇다가 後日에다시史稿의 「뉴—쓰」에 說明하는 役割을하는境遇가만타

이외에 新聞寫眞은「뉴—스」로서의 價値가잇는同時에 記錄寫眞으로도 相當히 重要性을 가지고 잇는것이다.

南極探險隊가 出發時에 攝影한寫眞이 興味잇는 「뉴—쓰」로서 한번錄遺되엇는데 그後不幸하게도 그隊員은 遭難을 當햇다고하는 通信을 接하여야될 그記事와가치 그出發時의寫眞을 다시揭載하엿다면 그寫眞은 그記事에對하야 더욱光彩를 내일것이다. 그러므로 寫眞의 保管이란撮影과 同一한 重要性을 가진다할수 잇는것이다.

以上을綜合하야 新聞寫眞을 一言하면 보는讀者로하여금 何等의 說明을 要치안허도 寫眞自體가 說明的이요 또 動的이어야할것이며 또一枚의寫眞으로서의 美的表現을 가진것을 우리는要求하는것이다.

(二) 뉴쓰카메라맨의 活動

新聞寫眞班은 普通營業寫眞家 나 或은寫眞趣味家와 달러서 銳敏한感覺과 優秀한技術과 또敏活한活動의 所有者라야 할것입니다 어떤事件을 當하엿을때에나 記憶하여야할것은 一、事件의內容 二、場所 三、時間 四、光線의表現等인데 如何히撮影하엿으며 이모든條件을 가장效果的으로 發揮할수잇을가하야 恒常硏究와努力을 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에는 每日發行하는 新聞紙面을 늘 熟讀하야 明日의 事件에對하야 準備가잇서야 할것이며 또한가지 重要한것은 多方面을 通하야 人事와地理에 詳細하여야할것입니다.

이제各部를 나누어말씀드리면 一、政治部 二、社會部 三、運動部 四、學藝部 五、經濟部 六、整理部으로 나누어말할수 잇으나 이모든部를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到底히 좁은紙面으로는 다 할수없기에 그中第一重要하고 또事件이 만흔社會部만을 말씀드리자면 A市內의火災 B水害 C公判 D暴風雨 水害被害地等 E公衆場 F每日的으로 이러나는事件 G季節에關한것等인데 이것 또한일일이 말씀드릴수없으니 그中에서 寫眞班이 活動한 자미잇는 이야기 몃가지를 紹介하가 합니다.

이것은 좀오래인 이야기입니다마는 米國某裁判所에서 名譽毁損事件 人本家人에關한 公判이 열리엇는데 이公判에對한寫眞을 박기爲하야 A社의寫眞班이 그前日裁判所의 前後關係를 돌아보고 가장適當한 場所로 그裁判所正門앞二層집에를 마음으로 作定하고도라갓다가 그이튼날 아침일즉이 그곳으로 와본즉 그곳에는 벌서 B社의寫眞班이 待機하고 잇섯습니다. 이것을본 A社寫眞班은 失望하지아니할수없엇습니다.

그래어찌하면 이자리를 도로 앗을수 잇을가하고 생각한結果— 正門에모인 群衆속에서 A社寫眞班이 寫眞機械를 꺼내가지고 門을向하야 다라났읍니다. 이것을 본群衆과 B社寫眞班은 以後門으로 오는중알고 뒷이나게 後門으로따라갓읍니다. 이틈을 타서 A社寫眞班은 빨리게 二層집

[illegible] 寫眞班 寫眞을 撮影하야 [illegible] 記事와 寫眞을 박어오 [illegible]

新聞寫眞班의活動光景

隨筆

「ㅡ·蒼·空」 (下)

李善熙

[illegible] 이가을에 ㅡ넘어으로 [illegible] 地平線 넘어 [illegible]

[illegible]

「시온의 딸들이여 무엇을 [illegible]」

나는 불행하야 外國할것을 도 [illegible]

장에가서 빛사과를 사오고 食堂으로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야겟다.

—끝—

明日의鋪道 (27)

李無影 作
安夕影 畵

지금까지의 이야기

처음 읽는 독자를 위하야 지금까지의 이야기 줄기를 간단히 소개한다.

당대에는 풍운아(風雲兒)로 알려진 이건혁은 안해 소연이와 무남독녀 영주를 남기고 죽엇다.

영주는 남쪽나라 C주에서 여고보를 졸업한 예민한 소녀다. 그는 일즉이 물아간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던터였다. 상훈 尙薰 이와 은연중 상사의 사이가 되어 잇는바 뜻밖에 아버지의 유서에서 일즉이는 보조를 가치하던 동지요 친우인 김합구의 아들 한중이를 영주의 배필로 정해두엇다. [illegible] 중에서 약혼한것이 판명되엇다. 영주의 어머니 소연이는 여러가지로 알아본 결과 한중이가 믿엄직한 청년이라 그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어 오도록 햇다. 편지를 한지 달포나 되자 한중이는 단엽하고 상훈이를 영주의 배필로 정해주기로 결심하여 뜻밖에 금강산에 가서 수양하던 한중이가 편지를 보고 쪼차왓다. 여기서 영주는 비로소 기로에서 서게되고 고민하기 시작햇다. 그러나 어머니 소연의 간곡한 청도잇어 하여튼 한중이와 한번 맛나보기로 결심하고 한중이가 와잇는사랑방으로 들어갓다.

南國의이른밤 (二)　소연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동

[illegible]

안에도 영주는 제 혼자 생각에만 취해 잇엇다. 불쑥 하룻밤 사이에 상치못한 마음의 변화를 보엿다. —한중에게 대한 지금의 자기감정은 호기심이란 단 한마디말로 표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것을 시인치 안을수 없엇든것이다.

「어째밤 꿈의 영향일까?…」

영주는 이러케 가벼이 흘려버리려고도 해 보앗다. 그러나 어떠서 생각할수 없토록 한중과 자기와는 얽히어 [illegible] 않다. 상훈과 자기로는 미진한것 같은 그런 것보다도 [illegible] 잇고 또 사실에 잇어서 자기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생각한 한중이 존재가 점점 영주앞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한것이엇다.

영주 자신은 그것을 부인도 햇고 또 믿지안흐려고 애도썻다.

그러케 경박한 영주는 아니라고 스스로 여겨보엿다. 그러케 할수는 없는일이라고 의리를 내세우기도 햇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옹치일수 없는 사실이엇다.

—지금의 영주에게는 한중이 또한 상훈이만 못지안흔 존재엿든것이다.

영주는 실로 며칠만에 경대앞에 앉엇섯다. 흥로처럼 피어나는 얼굴을 도취한 정도의 엷은 화장을햇다. 머리를 틀고나서는 어떤지 시골티가 흐른다고 생각되어 엽어게 뒤통을 지우고 뒤에는 조고마케 속로 박앗다.

「그러니까 필신 아울리는 구나」

어제왓는지 어머니가 경대뒤에 거울속을 드려다보고 잇섯다.

「한중이두 잘난드라만 내일도 지지는 안켓다……」

영주는 까닭없이 얼굴이 할작 달엇다.

「그만 밥 먹자」

「어머니 상식은?」

「올리구 왓다.」

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는 좀더 적극적인 감정이 잇섯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연이가 혼히 장성한 딸을 둔 어머니가 [illegible] 밥상을 받고난때 관습이 되다 싶이한 목도시간에도 영주는 몸이 마음이 설레엇다.

「오늘은 내 한중이하구 산소에 다녀올께니 저녁준비를 좀 해라.」

소연이는 언제 먹고 일어난다.

「시골서 뭘해서 저녁을 해요.」

「시골인데 뭐. 시골와선 맛잇는 시골밥을 먹어보는것두 자미지. 죽순이나 좀 드려오구 생선이나 좀 굽구 임어할 좀 치던지 그러치 뭐 별수 잇니.」

잉어소리를 들으니 순간 가슴이 서뻑햇다.

그러나 오정이 지나도록 한중은 보이지 안엇다.

소연이는 갑작이 취장을 입혼것같았다. 막걸이 밥을 치우고나서도 걸레를 들고 다니다 비틀집엇다 마음의 갈피를 못차리는 눈치엇다.

영주 또한 무관심 해 지지는안헛다.

한시가 지난때는 무관심 운운할 정도가 아니엇다. 방간한 예감은 까닭없이 갈팡꾼파 어깨이 되어 상훈에 대한 신음이 어지럽게 흐렷엇다.

「에 이사람이웬일이냐. 간밤에 갑작이 병이 낫단 말이냐. 그야말루……」

「글쎄요. 오신댓스니까 오시겟죠.」

영주는 한중이의 위에 혹에 흔반듯이 상훈이와 무슨 관계이 잇는것 같이만 생각이되어 견딜수 없엇다.

그러나 세시는 되어서 하숭은 왓다. 「뭉이주어 햇던 그녹은 만식 어머님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실로 서로 놀랏음만큼 가벼이 물을이르켯다.

영주 자신 그것을 인식 햇는지는 몰라도 그때 영주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무서운 기적을 발견한기쁨 —바로 그것이엇다.

藝術의新境地를開拓하라

映畫小說懸賞公募

映畫는 現代的인新藝術로서 자못 長足的인進勢로 獨特한文化를形成하여가는 途程에 잇다。그大衆파의 接觸面이 넓은만치 이에對한 一般의關心이 나날이 커감을본다。그러고 이를適宜히 奬勵함으로써 그敎化的乃至文化的 成果가 적지안흘것을 느끼는바이다。그러므로 本社에서는 昨年新春에 씨나리오를 懸賞公募하야 斯界의振興에貢하는先鞭을 着한일이 잇거니와 이번에 또 다음과같이 一種의 映畫小說을 天下에 公募한다。

이에「一種의 映畫小說」이라 하는것은 從來의 所謂「映畫小說」이 아니오 映畫와 文學과의 有機的綜合이 可能함을 具體的으로 보여주는 새로운形式의 讀物을 意味함이니 이를 紙上에 揭載하면「읽는映畫」가 되고 多少의 씨나리오的 脚色을 더하면 곧 撮影臺本이 될수잇는 것임을 要한다。

規定

一、內容。全朝鮮 著名한 勝景古蹟을되도록 많이 畫面에 나타나게하되 이야기의構成을 興味잇고 無理없이할것(勝景古蹟에關한로맨스를 더러 舍했어게 讀어너코 또 유모러스한場面을 가끔제미나게 쉬어너하 주엇음 좃켓다。)

一、長短。製作하야 十卷쯤될것으로 紙上揭載에는 一頁二百字原稿紙九頁을 一回分으로하야 三十回以上이됨을 要함

一、賞金。貳百圓

一、期限。七月末日

注意

一、應募作에는 반드시 一千字以內의 梗槪를 添付함을 要함

一、當選作의 製作權은 本社의 所有로함

一、落選作은 全部返送함(送料同封要함)

一、應募作은 本社學藝部로보내되 外封에「映畫小說」이라고 朱書함을 要함

東亞日報社

보고온이야기 【2】

東京에顯著한新傾向 構成派舞踊의擡頭

舞踊家 趙澤元氏談

[illegible]

趙澤元氏(左)……(右는[illegible]氏)

伊獨裁首相 柊林에挑戰

羅馬에世界的[illegible]

[illegible]

寫眞說明

盲人의新教育

地理學修·物理實驗도可能

[illegible]

投書函

常綠樹 映畫化

[illegible]

나그네 旅路를보고

[illegible]

紐育美人『모델』

情痴三重殺人事件

掌甲所有者는判明 (四)

슬픈葬列

[illegible]

만흔사람의 동정을 받으면서

기니오온은 예상과같이 장례에 참예하엿다。 [illegible]

떨엿으나 다시 평상과같이

[illegible]

번민이라는것은 주로부친과의씨새이에

[illegible]

신범인등장

아-파트에 방을 빌여잇는일이

[illegible]

사나이에게 화색스웨-드장갑

[illegible]

演藝消息

[illegible]

第一回 全朝鮮圍碁選手權大會

時日·七月十日　場所·本社樓上

—【定規】—

一、參加資格　朝鮮人男女

一、參加手續　參加金十圓(但地方在住者는免除)을添附하야 本社庶務部로。

一、等級賞金　一等一人、優勝盃一個及賞金百圓、二等一人賞金五十圓、三等一人賞金二十五圓

一、競技方法　審判部에서當日發表함

一、一般觀戰　本社의招待者以外에全觀戰者五十名未滿인境遇에는一般觀覽券을發行하되觀覽料는每人一圓。

主催 東亞日報社學藝部

投書函新設

[illegible]

規定

[illegible]

라디오

七月二日(金)

第二放送

[illegible]

七月三日(土)

第二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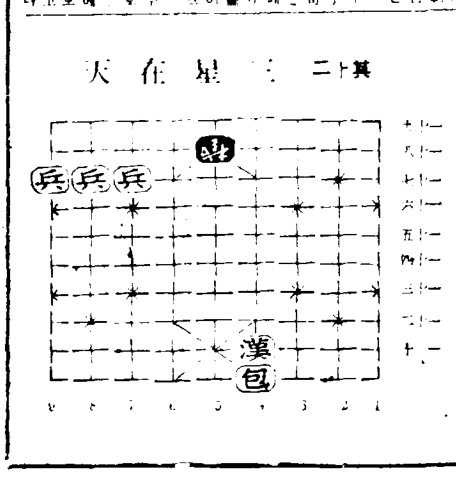
[illegible]

第一放送

[illegible]

博譜

其十二　三星在天



紅勝紅先數

解釋은明日

ClibPDF - www.fastio.com

產業

稻熱病의原因과 發生前後의退治法

㈠ …… 柳春燮

一、發病의 時期와의 關係

稻熱病이 發生하는데에는 温度도 다른 氣象과 같은 程度의것은 必要하되 濕氣도 亦是 必要하다 日光을 받으면 病勢는 그繁殖을 中止하되 夜間이거나 雨天이거나 또 벼가 나린後에 날시가 부터 天候 어두운때에는 猛烈한 勢力으로 繁殖하게되는것이다

二、潛伏期

[illegible]

第三章 稻熱病의豫防法

一、種子의選擇

[illegible]

二、種子의消毒

[illegible]

莞草"스레바" 米國으로輸出

慶南產一足八、九錢

[illegible]

大邱米取上期 八百八十萬石

比前同期六割增

【大邱】大邱米穀取引所의上半期[illegible]

楊口金組 負債過多

【楊口】楊口金融組合은[illegible]

朝鮮土木事業 四割은明年에

[illegible]

□…米國으로輸出하는莞草스레바

染工聯挑戰에 朝鮮側反擊

[illegible]

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illegible]

西鮮地方移秧 約九割完了

【鎮南浦】[illegible]

苔灘麥作大豐 比昨年三割增

【苔灘】[illegible]

公州地方 豐作豫想

【公州】[illegible]

紙價高影響으로 楮紙業大活況

慶北一帶의異狀

【大邱】世界的 紙價暴騰으로 [illegible]

安城旱魃

【安城】[illegible]

扶安移秧 九割五分終了

【扶安】扶安郡內 [illegible]

京畿道春繭 十八萬貫突破

[illegible]

貿易懇談會 五日로延期

[illegible]

豐川特產苹果 年產五十餘萬貫

例年보다四割增收

【豐川】[illegible]

楊口棉作 豐作豫想

【楊口】[illegible]

日銀總會

【東京電話同盟】日本銀行에서는[illegible]

十九個年計劃의 畜牛大擴充案

二百四十萬頭產增을目標코 總督府農林局서決定

總督府農林局에서는 [illegible]

朝鮮炭需要 約廿萬噸을增加

[illegible]

江原道에서 林野開發企圖

【春川】[illegible]

日滿商事 第一回總會

【新京三十日發同盟】[illegible]

江原道에서 緬羊增殖을計劃

優良種七百頭購入

【春川】[illegible]

注文津鰮魚 十八萬圓豐收

【注文津】[illegible]

林業開發會社 設立委員任命

[illegible]

仁川近海乾蝦價 二割六分로慘落

原因은輸出業者의計策

【仁川】[illegible]

全南苧麻布 檢查所開始

【光州】[illegible]

滿洲國鹽業 五年計劃樹立

年三十萬噸輸出目標

【奉天三十日發同盟】[illegible]

臺灣米收穫豫想

四百九十五萬餘石

[illegible]

六月中米粟輸移出入高

(單位石)

[illegible]

地方產業雜信

▲馬山 [illegible]

▲群山 [illegible]

鑛業權의動靜

鑛業權設定

[illegible]

鑛業權移轉

[illegible]

鑛業權變更

[illegible]

鑛業權表示變更

[illegible]

登錄名義人表示變更

[illegible]

共同鑛業代表者改定

[illegible]

共同鑛業權者脫退

[illegible]

朝鮮內春繭取引時勢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